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창조경제 대표선수들, 매스챌린지 정조준한다

한국 25개 창업팀 보스톤에서 현지 워크숍
워싱턴 글로벌혁신센터(KIC) 워싱턴센터 주관
“창업팀의 양과 질적 향상은 창조경제가 성장한 것”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스챌린지(MassChallenge)에 도전하는 한국 창업 기업들이 현지적응 훈련을 위해 보스톤에 왔다. 글로벌혁신센터가 주관해 참가하는 것은 올해 두번째로 지난해보다 강해졌다.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훨씬 많고 질적으로 뛰어난 창업팀들이 이번엔 참가하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워싱턴글로벌혁신센터(KIC)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종성 BU 경영대 교수의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보다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16개에서 올해는 25개로 많아졌고 참가분야도 의료

및 바이오 분야가 8팀, 하이테크 5팀, 소셜임팩트 3팀, 클린에너지 2팀 등 다양성의 폭이 넓어졌다. 김교수는 “창조경제가 그만큼 성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4월 세계 최대의 비영리 스타트업 육성 및 경쟁 프로그램인 매스챌린지에 도전장을 내밀게 된다. 매스챌린지에는 전세계에서 매년 2천여 개 팀이 도전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올림픽’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다. 마라톤계에 보스톤마라톤이 있듯이 창업계에는 매스챌린지가 있다.

▶▶2면으로 계속



창조경제를 현실화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김종성 글로벌혁신센터장

뉴잉글랜드지역 대표들 모여 보스톤총영사관서 3.1절 기념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보스톤총영사관은 29일 월요일 뉴튼 소재 영사관에서 뉴잉글랜드 지역 통합 3.1절 기념식을 가졌다.

과거 총영사관을 비롯해 각 한인회 별로 진행되던 3.1절 기념식이 올해 들어 총영사관 주최 각 한인회 관계자 및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하는 통합 기념식으로 진행됐다. 보스톤 한인회 김경원 회장은 “올해 별도로 3.1절 기념식은 개최하지 않고 총회를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최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영심 노인회장이 이끄는 보스톤 한미노인회 회원들이 다수 참석해 3.1절 기념식을 이끌었다. 만세삼창을 선창할 때는 노인회 회원들이 모두 앞으로 나와 만세 삼창을 선창하면서 전체 참가자들의 만세 삼창을 이끌어 냈다. 기념식에 ▶▶8면으로 계속

이민비 상별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jusa.com

4월 비수기 출발 특가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From **\$999**
ONLY 1 STOP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1.866.619.4223(Toll Free)/617.424.8956

*\$999는 델타항공 요금입니다. 2016년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출발하는 항공권에 한해 적용됩니다. 동시에 출발일 기준 최소 21일 전에 예약되어야 하며, 2016년 3월 9일 전까지 발권되어야 합니다. 항공권 요금은 여행일정, 항공사, 예약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 평일 / 오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톡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함인항공권 전문
IACE TRAVEL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받으실 기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t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Law Office,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a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445.1587
juno@sonjasalami.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스타트업 올림픽이라 불리는 매스챌린지 25개 분야의 한국 창업 기업들이 도전

▶▶1면에 이어서

25개 한국 창업팀들은 이미 엄격한 경쟁을 통과한 전도양양한 기업들이다. 이들은 한국 소재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창업기관들의 추천을 받은 65개 창업팀들 중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 선택된 팀들이다. 김종성 센터장에 따르면 “창조경제의 대표선수” 들이다.

지난 2월 15일부터 워싱턴글로벌혁신센터가 주관한 3주간의 ‘스타트 매스 챌린지’ 워크숍에서 보스턴 창업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팀별 사업모델을 보완하고 매스챌린지 참가준비를 완료하게 된다. 보스턴대학(BU)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서는 매스챌린지 지원서에 회사소개서를 쓰는 방법부터 자신의 회사를 창의적으로 알리는 피칭(Pitching)까지 경험한다.

김종성 센터장은 “매스챌린지는 128개 기업을 뽑는데 세계에서 2천에서 2천5백여 기업들이 지원한다. 경쟁률이 20대 1이다. 이렇게 따지면 25개 팀이니 사실상 1-2개 팀 정도가 파이널리스트에 뽑힐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딱 5개 팀 정도가 선발되면 좋겠다” 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6개 팀이 2500여 지원 기업들과 경쟁했으며 이중 5개팀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온누리 DMC만 최종 128개 기업에 들었다. 온누리DMC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행동패턴을 분석해 최적화된 광고를 다양한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사업모델이었다. 김교

수에 따르면 온누리 DMC는 현재 보스턴, 뉴욕 그리고 실리콘 벨리에 미국지사 건립을 검토 중에 있다.

매년 매사추세츠 주 정부 지원으로 보스턴 대학(BU)이 주관하는 매스 챌린지는 초기 기업가들에게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경계를 벗어나 국내 및 국제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전세계 2천-2500여개 출전팀 중 엄격한 서류심사와 면접, 2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 진출팀 128개가 선정된다. 이어 4개월간 창업 교육 프로그램과 집중 멘토링을 제공한 후 최종심사를 해서 우승팀 10여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175만 달러의 상금과 1천만 달러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2월 9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매스 챌린지의 1차 마감일은 지난 3월 2일, 최종 접수 마감일은 3월 31일이다. 접수 신청이나 매스 챌린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masschallenge.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로벌혁신센터란: 글로벌 혁신센터(KIC)는 Korea Innovation Center의 준말로 창조경제의 글로벌 전진기지다. KIC는 워싱턴과 실리콘벨리 그리고 유럽 3곳에 있다. 김종성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워싱턴센터는 매스 챌린지 도전팀 양성과 정부출연기관, 대학의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 25개로 추려진 한국 창업팀



3월 3일 BU 경영대학 건물 4층에서는 특허전문 김공식 변호사의 강연이 한창이다.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혁신센터(KIC) 김종성 소장이 주관하는 ‘스타트 매스 챌린지’ 워크숍 참가자들. 25개 스타트업 기업들 관계자들은 한국의 창조경제의 실체이자 유망주들이다

최첨단 연구결과의 창조경제 사업화에 접목하는 I-Corps 프로그램 진행이 주요임무다.

미국의 경우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방성 자원이나 나사를 통해서 이노베이션이 일어났다. 이들은 모두 워싱턴에 있다. 정부에서 출

연하는 연구기관들이 어떻게 새로운 경제로 상업화 하는 R&D 상업화 프로젝트를 연구해 한국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editor@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턴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시제이 미키 리 부회장 버클리음대 이사회에 임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 생산업체로 미국내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제이그룹(CJ) 미키 리 부회장이 보스톤 소재 버클리음대의 이사회 이사로 임명됐다. 버클리음대는 현재 3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키 리가 최초의 아시아인 이사이다.

시제이는 드림웍스의 창단 투자자로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드림웍스 단독 배급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내에서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체인인 CJ CGV, 17개 케이블사를 운영하는 CJ Media, 그리고 음악 전문 케이블인 Mnet 미디어를 운영 중이다.

버클리 이사회 제프 웨임스 의장은 “미키 리가 버클리 이사회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 라고 밝히고 “한국음악과 문화를 키우고 세계에 보급하는 길을 튼 비전을 소유했다. 그의 성과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음악산업 원형 창조를 꿈꾸는 버클리의 경영진과 학생들의 핵심적인 예로 자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미키 리는 지난 2006년 월드비즈니스어워드에서 최초의 아시아인여성 수상자가 됐으며 영화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인사 중의 한명으로 선정됐다. 2007년에는 한국경영자협회의 올해의 CEO상을 수상기도 했다.

한국 온라인뉴스인 핑프가 2013년 드림웍스의 최고경영자인 제프리 카첸버그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그는 “CJ와의 협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드림웍스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미키 리와의 좋은 관계가 큰 도움이 됐다.” 라며 미키 리의 역할을 강조했다. 드림웍스는 슈렉, 쿵푸팬더, 마다가스카 등을 제작한 애니메이션 회사다.

미키 리 부회장은 1995년 30대이던때, 캐주얼한 차림과 유창한 영어로 카첸버그와 스피버그의 호감을 사 일본의 경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30%의 지분을 투자하게 됐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미키 리는 풍요를 누리는 아시아의 젊은이들에 대한 감격을 갖추고 있다. 총명한 코스모폴리탄으로 미키 리는 테네시의 녹스빌에서 태어났으며 한국에서 자랐고 서울대와 하버드대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사업 영역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써 영화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됐다.

미키 리는 대만국립대에서 중국어를 공부했고, 일본의 게이오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했다. 하버드에서 아시안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국의 푸단 대학에서 중국문학을 공부하기도 했다.

미키 리는 이미경 부회장이 하버드 대학



시제이그룹(CJ) 미키 리 부회장이 보스톤 소재 버클리음대의 이사회 이사로 임명됐다

재학시절 쓰던 영문 애칭이다.

버클리음대는 비영리 단체로서 창립된 70년 동안 미국의 음악 산업을 반영하는 학교로 자리매김해왔다. 지난해 말 클래식 음대인 보스톤 콘서버토리과 합병해 종합음악대학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한국의 김광민, 장해진, 윤상, 싸이, 양파, 김동률 등 수많은 음악인들이 버클리를 거쳐갔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변호사회 유학생들과 만남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2월 25일 보스톤 소재 보스톤대학(BU) 캠퍼스에서 보스톤 소재 6개 대학 학생회 연합 소속 학생들과 만나 유학 생활과 관련한 상담을 제기했다.

이날 모임에 참여한 대학은 보스톤칼리지(BC), 벤틀리(Bentley), 노스이스턴(NEU), 뱁슨칼리지(Babson), 그리고 MCPHS 학생들이었다. 이날 모임에 벤틀리 학생회에서는 참여를 못했으며 약 2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참여학생들의 상당수가 1-2학년 학생들이었다.

변호사들은 성기주, 김연진, 정선진, 장우석 순으로 총 4명이 참여해 유학생들이 궁금해하는 OPT관련한 내용과, 취업비자(H-1B), 영주권(Greencard) 심사, 유학 생활하면서 신분유지를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 경/중범죄 대처하는 요령, 영사접견권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학생들은 고용주 입장에서 어떤 직원을 채용하고 싶은지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변호사들은 채용 인터뷰 시 질문에 대한 숨은 의도를 설명해주고 잘 파악해 대처하도록 했다.

보스톤 변호사회는 이번 모임의 취지가 “멀리 타지 않는 환경에서 소수민족으로서 불안하게 생활하겠지만, 변호사들도 대부분 유학생 출신으로 10~20년정도 먼저 유학과정을 거친 인생의 선배로서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모임을 마치고 나서도, 관심있는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변호사들과 얘기를 나눴다.

bostonkorean@hotmail.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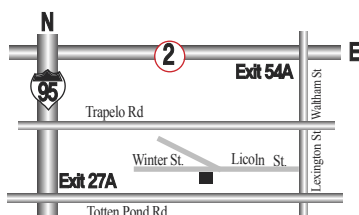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Spring 2016 Schedule

Class	Time
SAT II MATH II C	Start 3/26/16 - 5/28/16 Saturdays 9:00 AM - 11:00 AM
SAT II / AP Chemistry	Start 3/14/16 - 5/28/16 Saturdays 11:30 AM - 1:30 PM
SAT II / AP Biology	Start 3/12/16 - 5/28/16 Saturdays 2:00 PM - 4:00 PM
SAT II MATH I C	Start 3/26/16 - 5/28/16 Saturdays 4:30 PM - 6:30 PM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북한의 실상과 선교의 가능성 강연회

BNI 평신도 대학원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뉴헤미야 평신도 대학원은 오는 12일 토요일 저녁 6시 45분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 한인교회 ECC 채플에서 이성윤 박사와 장위현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북한의 실상을 알아보고 선교의 가능성도 타진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주강사는 미국내 북한 전문가로

손꼽히는 틱스 플래처 스쿨 이성윤 교수다. 이교수는 이날 <북한의 대외전략과 한미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날 부강사로는 장위현 벨몬트 워터타운연합감리교회 목사가 <내안의 통일>이란 주제로 방북이야기를 들려준다.

BNI 평신도신학원은 지역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성 있는 신학강사진들을 통해 지역의 한인 평신도들에게 성서신학을 포함한 체계적인 기본 신학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원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좌)이성윤 박사 (우)장위현 목사

새생활센터 무료 건강검진 제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새생활센터(대표 송연호)가 3월 19일 토요일 무료 건강검진진료를 실시한다.

진료 서비스는 매사추세츠 주민뿐 아니라 방문자에게도 제공되며 무료 내과진료와 치료 검진 및 건강 상담이 포함된다. 내과는 처방전을 무료로 발행하며 치과는 검사 및 예방상담을 제공한다. 환자들의 진찰 순서는 도착하는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뇨병 검사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날 아침식사를 거르고 오면 보다 정확한 혈액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정확한 건강상담을 위해 BMI(Body Mass Index)와 체지방검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진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스톤 새생활센터 송연호 대표(317-374-4786 혹은 781-279-3270)에게 하면 된다.

무료진료 안내

일시: 2015년 3월 19일 토요일 오후 2~4시

장소: Boston Korean SDA Church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bostonkorean@hotmail.com

오준 유엔 대사 북핵 주제로 4일 MIT에서 강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준 유엔대사가 오는 3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MIT에서 “북한핵”을 주제로 강연회를 갖는다.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핵실험과 로켓발사, 개성공단철폐, 유엔대북 제재 등으로 국제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된 상태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오준대사는 지난 강연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적이 있으며 이어 그는

“남북통일을 통해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평통 홍보분과 이현경 씨는 “특히 이번 초대강연에서 한반도의 현실정, 그리고 주변국의 과제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내용들이 기대된다.” 고 밝혔다.

장소: MIT

(32 Vassar Street, Cambridge MA (Classroom: 32-155))

날짜: 3/4일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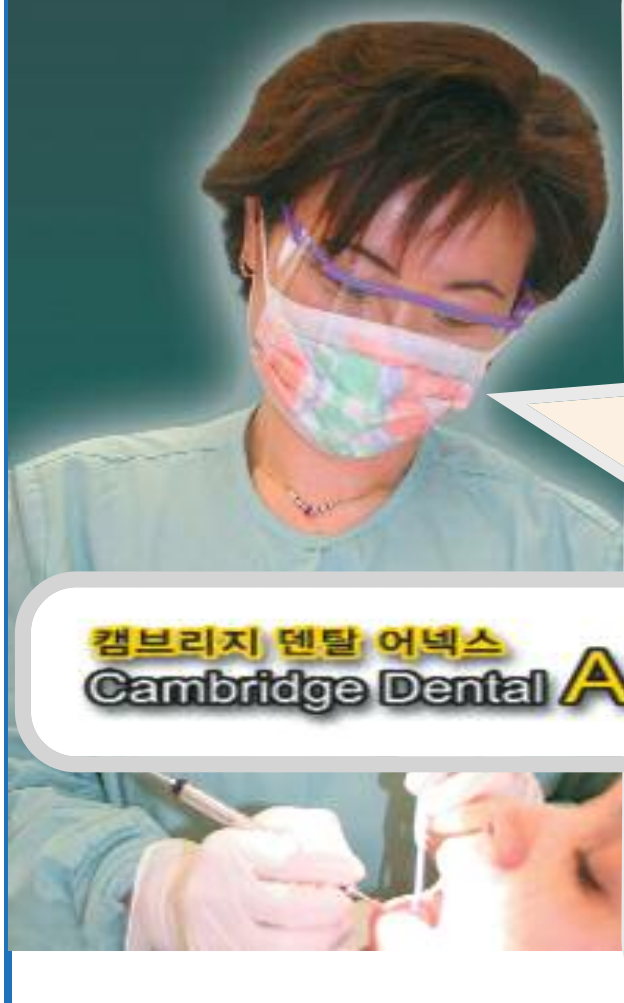
일시: 저녁 6시 30분

bostonkorean@hotmail.com



오는 3월 4일 MIT에서 강연을 갖는 오준 유엔대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용솨음치는 활력과 건강,
녹용으로 누리세요.**

청정 뉴질랜드 녹용과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만남

**치유 보습으로 피부의
기초면역력을 높여 줍니다.**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비밀스러운 처방

동인비 제품 \$100 이상 구입시
동인비 클렌징 오일젤 무료증정

Free Gift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정**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 당뇨 합병증 예방
-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 기력회복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IRS 세무조사, 1백만불 이상 소득자에 집중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점점 늘어
2015년 자료에 따르면 백만불 소득자 10% 세무조사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1백만불 이상 소득을 올리는 부유층들은 미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IRS가 2월 22일 발표한 자료를 인용 보도한 포브스와 마켓워치 등 언론에 따르면 2015 회계연도인 지난해 9월말까지 연소득 1백만불 이상 고소득자중 10%가 과거에 제출한 세금보고 서류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는 2014년도 1백만불 고소득자 세무조사 7.5%에 비해 높아진 것이다.

이 같은 고소득층 세무조사 비율 상승은 20만불 이하의 소득층 1억4천7백만명의 개인소득자중에서는 역대 최저인 단 1%만 세무조사 대상이었다는 점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IRS는 2015년 세무조사 및 관련 단속활동을 통해 총 542억달러를 거둬들였지만 2014년 570억 달러에 비해 여전히 적었다. 존 코스키넨

IRS 커미셔너는 계속된 예산감축으로 인해 세무조사가 역대에 비해 거의 최소수치로 줄었다고 밝혔다.

“2010년에 비해 IRS에 할당된 예산이 9억달러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세금보고 서류는 1,000만건이 늘었다”며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IRS 직원들은 공정한 세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IRS 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 직원은 지난 2010년에 비해 25%나 줄어들었다.

IRS 지난 10년간 점점 조사대상을 고소득자로 옮겨가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2006년에 1백만불 이상 고소득자 세무조사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반면 20만불 이하의 소득자에 대한 감사는 2.6%로 꾸준했었다. 또한 IRS는 직접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필드조사는 줄이고 서면조사 비율을 늘려왔다.



지난해 9월말까지 연소득 1백만불 이상 고소득자중 10%가 과거에 제출한 세금보고 서류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았다

서면조사중 서류일치 조사 (document-matching inquiries)는 개인의 세금보고에 나타나는 금액과 은행이나 브로커 등 제 3기관에서 제시하는 금액의 차이에 집중한다. 서면조사(Correspondence audits)는 사업지출, 임대주택 및 자선기관 감면 등 보고의 문제가 되는 분야를 조사하는 것이다.

IRS 컴퓨터는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큰 비용지출 또는 이례적인 감면 등에 주목한다. 과도한 가정 사무실 지출, 집 손상에 대한 과도한 재해손실이 이런 경우다. 스케줄 A의 아이테마이즈드 디덕션,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스케줄 C의 자

동차, 여행, 유흥 경비 등, 그리고 스케줄 E의 임대소득과 손실이 주로 세무조사를 유발한다. 이 같은 비용지출은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IRS는 또한 지난 2015년부터 파트너십과 S 코퍼레이션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도 높였다. 자영업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면 조사에 있어 불완전한 답변은 추후 정밀조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문제도 심각하게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hsb@bostonkorea.com

보스턴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턴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백은세 Eun Se Baik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턴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협의회 주관 2016년 교사연수회 및 사은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협의회가 주최한 교사연수회 및 사은회에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교장, 교사 및 교육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7일 토요일 열렸다.

렉싱턴 소재 엘크스 클럽(ELKS CLUB)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내외와 이광석 교육

영사, 뉴잉글랜드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함께 참여해 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뉴잉글랜드 협의회 한순용 회장은 “2세들의 뿌리 교육은 물론, 현지 외국인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역사 교육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선생님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마련한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환영사를 시작하였다. 이어 뉴잉글랜드 협의회 박신영 이사장은 “교사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힘써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한국어 교육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격려사를 하였다.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는 한국어와 문화, 역사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와 선생님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고 축사를 전했고 재외동포재단의 선물을 전달하였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 협의회는 협의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뉴잉글랜드 협의회 장인숙 직전이사장, 뉴잉글랜드 협의회 명성진 이사, 노인회 유영심회장, 시민협회 이경해 회장, 민주평통 한선우 대표, 중앙대 동문 이기환 대표, 한양대 동문 서민원 대표, 무역협의회 안병학 회장, 과기협회 이현희 회장, 보스톤 한인회 김경원 회장, 뉴햄프셔 한인회 조은경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한순용 회장은 재외동포재단 주최 맞춤형교육안 프로그램에서 수상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 상패를 전달하였다.

한국학교 협의회는 뉴잉글랜드 지역 각 학교에서 추천된 우수교사 8명과 장기근속 교사 12명에게 표창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우수교사와 장기근속교사에게 수여한 상금은 한순용회장, 장인숙 직전이사장, 함혜란 이사, 윤미자 직전 회장의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교사 선물은 박신영 이사장, 한순용 회장, 명성진 이사가 후원하였다. 이외에도 재외동포재단,



지난 2월27일 1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교사 연수회 및 사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순용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협의회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보스톤총영사관, 그레이프 바인 타임즈, 보스톤코리아, 한인회보가 이 행사를 후원하였다.

전체강연으로 ‘맛갈스러운 수업 전략과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용철 경희여중 교사는 “수업은 소통이자 학생과의 호흡이다”라며 한국어 교육에 대한 심도있는 강연을 진행, 호평을 받았다. 이번 교사 연수회 및 사은회에 참가한 한국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교사들은 서로 공감하며, 소통의 수업방법 등을 나누는 등 교육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자리에 참석한 한 교사는 “이번 사은회 및 연수회를 통해 효과적인 한국어 수업

2016 방법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전문성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만족했다.”고 밝혔다. 특별 공연으로 김소연씨가 거문고 연주를 소프라노 조유미, 피아니스트 조영웅씨가 노래와 연주를 선사했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 협의회 다음 행사는 4월 30일 뉴잉글랜드 지역 어린이 글짓기대회이다. 협의회 행사에 관한 문의는 한순용회장 (978-835-9168), 박지애 총무 (jiaa@live.com) 또는 협의회 웹사이트 (www.naks-ne.org) 로 하면 된다 . bostonkorean@bostonkorea.com

수상자 명단

• 우수교사: 8명

- 박진국
그린랜드한국학교
- 김민정
뉴잉글랜드한국학교
- 조화영
뉴잉글랜드한국학교
- 황규라
뉴잉글랜드한국학교
- 김현준
뉴잉글랜드한국학교
- 맹은선
뉴잉글랜드한국학교
- 고은비
북부보스톤한국학교
- 강빛나
우스터 한국학교

• 장기근속 교사 : 12명

- 김세영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5년 근속 교사
- 유정훈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5년 근속 교사
- 안은숙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5년 근속 교사
- 박현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5년 근속 교사
- 신영옥
메인 한국학교 5년 근속 교사
- 안영례
메인 한국학교 5년 근속 교사
- 김성희
보스톤장로교회 한국학교 5년 근속 교사
- 송미경
보스톤장로교회 한국학교 10년 근속교사
- 안순지
보스톤장로교회 한국학교 10년 근속교사
- 이상윤
퀸지한국학교 10년 근속교사
- 조진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5년 근속교사
- 김영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15년 근속교사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이현경 선생님이 20년 근속상 표창을 받고 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016학년도 봄학기 개학식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학생들이 4주간의 겨울방학을 마치고 뉴튼소재 학교에 27일 아침 모여들었다. 2016학년도 봄학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반배정을 받은 학생들은 새학기 한국학교 수업을 시작했다.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순 리더교사의 사회로 시작된 봄학기 개학식에서 남일 교장은 지난 2015학년도 가을학기 교내 교사훈련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강은숙, 김정, 류연지, 손은혜, 신민영, 이소정, 이유니스, 임주경, 정진희 교사 등 9명의 신입교사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특히 남교장은 2세들의 뿌리교육을 위해 무려 20년 넘게 학생들을 지도한 달님반 이현경 교사에게 근속교사표창패를 각각 수여했다.

학부모회 이현주 회장은 “오늘 2016학년도 봄학기를 시작하며 또 한 학기 동안도 즐겁고 재미있게 학교생활에 임해 주기를 바라며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학부모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며 환영사를 전했다.

남일 교장은 오전 정규반 6개 과정 소속 교사들과 오전특별교육, 오후특별프로그램 교사 및 보조교사들을 소개하며 격려했다. 주민정, 황규라 교사의 선장에 따라 전교생과 교사들은 손을 들고 ‘우리가 지켜야 할 수칙’을 함께 선창하며 선서식을 가졌다.

1975년에 개교한 지역 최대규모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2세 준비반부터 성인반 및 오전오후특별교육 프로그램까지 모두 4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8개의 이중언어반인 세종과정은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가정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문의 및 오전-오후프로그램 교사지원은 전화 (508) 523-5389 또는 이메일 ksneusa@verizon.net로 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www.ksneusa.org를 방문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슈퍼 투스데이 매사추세츠 프라이머리 이모저모



3월1일 매사추세츠 프라이머리 민주당 및 공화당 투표 결과



투표장 인근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는 지지자들



렉싱턴 소재 커뮤니티 센터에 마련된 투표장 모습



유권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한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고 있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 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빙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a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주보스턴총영사관은 29일 월요일 뉴튼 소재 영사관에서 뉴잉글랜드 지역 통합3.1절 기념식을 가졌다. 사진은 총영사 및 각 단체장들이 만세삼창을 하는 모습



각 한인회장과 단체장들이 3.1절행사에 참석해 기념식을 가졌다

보스턴총영사관 주도 뉴잉글랜드 지역 통합 3.1절 행사

▶▶1면에 이어서

는 민주평화통일 보스턴지역협의회 한선우 회장이 중심이 된 평통 자문 위원들도 다수 참여했다.

엄성준 총영사는 3.1절 축사에서 “97주년 3.1절을 맞이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열들의 나라에 대한 사랑과 용기를 되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만세 운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이 살아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독립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고 3.1절의 의미를 강조했다.

엄총영사는 각 한인회장과 단체장들을 앞으로 초청해 모두 3.1절에 관한 인사말을 나누도록 했다. 한선우

평통회장, 한순용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회회장, 김우혁 재향군인회 회장, 유영심 노인회회장, 조은경 뉴햄프셔한인회장, 김경원 한인회장이 미국 땅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갖는 3.1절 행사의 의미와 이 정신의 후세에 대한 전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특히 조은경 뉴햄프셔 한인회장은 한국 학교에서 있었던 3.1절 행사를 이야기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기념식 후에는 보스턴총영사관에서 준비한 한식 식사와 함께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bostonkorean@hotmail.com

재외유공 국민포장, "저 아닌 남편의 공"

함혜란 로드아일랜드 한국학교 명예교장 수상받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함혜란 로드아일랜드주 한인학교 명예교장이 지난 10월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받은 국민포장의 전수식이 29일 총영사관에서 열렸다.

엄성준 총영사는 함혜란 명예교장에게 국민포장 상장과 배지 그리고 부상으로 손목시계를 전달했다.

함혜란 명예교장은 남편인 고 강경식 브라운대 교수 및 한국학교 선구자들과 1980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NAKS)를 설립하는데 함께 했으며 1984년부터 2004년까지 20년간 로드아일랜드 한국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함혜란 명예교장은 “남편인 고 강경식 브라운대 교수는 로드아일랜드 한국학교를 창설했다. 2세를 위한 것이라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며 헌신적으로 희생했다. 뉴욕의 허병렬 선생님과 함께 뉴욕의 인천집에 모여 재미한국학교협의회를 창설하기도 했다” 고 밝혔다.

함교장에 따르면 “고 강경식 교수는 ‘학문도 오케스트라와 마찬가지로. 모든 게 합쳐져야 좋은 음악이 나온다.’ 고 말했다. 그때는 교재도 없었고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합쳐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있



엄성준 총영사(좌)와 함혜란 명예교장(우)

었던 것 같다” 고 밝혔다. 강경식 교수는 2006년 별세했다.

함 교장은 “나는 열심히 강경식 교수 하는 일을 부장부수처럼 열심히 따라가기만 했다.” 라고 겸손해 했다. 그는 또 수상소감을 통해 “하나님과 부모님 그리고 남편께 감사한다” 고 전하고 “뉴잉글랜드 모든 분들께 주는 상으로 생각한다” 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hsb@bostonkorea.com

김성혁 전 평통회장 대통령 표창 받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김성혁 전 평통회장의 대통령 표창이 29일 총영사관에서 엄성준 총영사를 통해 전수됐다.

김 전평통회장은 “3.1절이기 때문에 집안의 이야기를 안할 수 없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장총을 메고 독립운동을 하셨다. 당시 아이를 낳았는데 양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기셔서 그 밑에서 자랐으며 친조부모의 행방을 아직도 모른다. 아버님은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반탁운동을 했다. 그래서 이 상은 개인에게 준 상이 아니고 저희 집안의 한맺힌 섭섭함을 푸는 것으로 생각한다” 고 밝혔다.

또 김 전회장은 “보스턴에서 민주평통을 한다는 것은 보스턴만의 색깔이 있다. 우리 보스턴 평통에서는 보스턴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고 자신의 평통



엄성준 총영사가 김성혁 전 평통회장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달했다. 회장으로 일했던 점을 회고했다. 김 전회장은 지난 2014-2015년까지 2년동안 평통보스턴지역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미정치력연대 보스턴지회회장을 맡고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오빠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onkers

보스턴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턴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Equal Housing Opportunity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국제 인턴, 봉사활동 지원 단체 아이섹 인터뷰

하버드 생활은 제 인생 가장 큰 경험이에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인턴으로 일한지 한 달째, 금 씨는 하버드에서 세번 놀랐다. 한국에서는 다시는 안 볼 각오로 임해야 하는 토론. 하지만 하버드에서의 그것은 매일이 일상이고, 끝나면 무슨 일 있었냐는 듯 같이 밥 먹고 술을 마시는 관계에 그 첫 번째다. 한국에서는 그림자도 밝아서도 안 될 것 같은 교수. 그것도 하버드 대학의 교수는 훨씬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교수는 그의 토론 상대였고 좋은 아이디어의 개방적이라는 것에 놀라움이었다. 보스톤에서의 꿈만 같았던 첫날. 운영진의 실수로 여자들만 사는 방에 남성이 한 명 끼어있고, 그 남성이 게이였다. 그렇지만, 그도 나와 똑같이 사람을 사랑하고, 나와 같은 꿈을 꾸고 나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20대 청년이라는 것에 세 번째로 놀랐다.

금씨의 세 번의 도전

금 씨의 인턴생활의 시작은 생각했던 것처럼 순탄치만은 않았다. 첫 번째로 지원한 캐나다의 한 제약회사에서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내정되었던 인턴직이 소멸되는 불운을 겪었다. 금 씨의 노어노문학과 전공을 살려 도전했던 우크라이나로의 2번째 도전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중간에 연락이 끊겨버렸다. 금 씨의 마지막 도전은 하버드 대학교의 인턴직이었다. 그러나 전공과의 연관성이 적다는 이유로 예비 후보로 밀렸다.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던 금 씨가 조용히 취업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쯤 어느날 갑자기 낭보가 날아왔다. 한국에서 참여하기로 했던 학생이 갑자기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덕분에 예비 후보였던 금씨는 한국에서 선발되는 2명의 인턴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금 씨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 해외 경험이 전무했다. 그는 한국에서 아이섹(AIESEC)이라는 단체의 고려대 지부장을 역임하였고, 하버드에 온 경로도 아이섹을 통했다고 밝혔다. 아이섹은 해당 국가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타국의 학생들이 개발된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연결 해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이 단체에 소속된 학생들은 자신의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과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해외에 있는 학생들에게 인턴업무와 봉사활동을 연결 해 주고 있다.

새로웠던 하버드에서의 경험 3가지 - 토론 문화, 사제관계, 성소수자

금 씨는 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수장인 리처드 프리먼 (Richard B. Freeman)박사의 '국제 빅 데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각국의 경제 정책에 따른 경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과편화 된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다. 인턴업무에는 금 씨와 함께 일하는 한국인 김지은 씨를 포함하여 러시아, 브라질, 영국, 인도, 호주 출신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에서 지내다 보니 언어적 문제도 물론 있지만 친화력으로 잘 극복하고 있다는 금 씨는 하버드에서의 가장 큰 경험으로 토론 문화를 꼽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토론을 할 때 싸우다시피 하잖아요. 나와 의견이 다르면 적(敵)이라는 생각이죠. 여기에서도 물론 자기주장은 다들 강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토론이 하나의 문화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악의가 없다는 걸 알고 상대에 대한 존중은 끝까지 지키기 때문에 뒤끝이 없죠. 토론이 논리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상대측 의견으로부터 배울 점도 많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유일한 인문학 전공자인 금 씨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교육학. 그는 한국의 경제발전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교육열에 기초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금 씨는 프리먼 교수에게 한국의 경제발전 주제의 연구를 교육학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하버드대학은 세계에서 제일 손꼽히는 대학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의 교수님이라 더 보수적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너무 흔쾌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가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인 것이 신선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 하면서도 학생이 의견을 내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학생에게 그것에 대해 꾸준히 질문을 하면서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끄집어내려는 교수님들의 태도가 한국과는 많이 다른 점이었어요."

금 씨가 하버드에서 경험한 세 번째는 성소수자였다. 한국에서도 성소수자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었지만, 학내에서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거니와, 커밍아웃을 하는 친구는 흔치 않지 않기 때문이다. "보스톤에 온 첫날 숙소배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자 4인실에 남자 한명이 배정 된 거예요. 이에 항의를 했는데, 이름이 여자 같아서 여자인 줄 알았다고 변명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때, 그 친구가 자신이 게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커밍아웃을 했어요. 남자 둘이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자기 남자친구라며 안심해도 된다고". 어색할 줄 알았던 게이 친구는 연애에 대한 대상만 다를 뿐 너무도 꿈과 미래, 가치관이 금 씨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20대의 청년이었다. 금 씨의 보스톤 생활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게이친구. 만약 금 씨가 하버드에 오지 못했다면 성소수자들의 경



아이섹을 통해 하버드대학 '국제 빅 데이터 프로젝트'의 인턴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금혜원 씨

험을 들어보는 기회는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금 씨의 하버드 생활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Gretta' 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금 씨의 브런치 계정에서 (<https://brunch.co.kr/@hyewonabl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이섹이란

아이섹은 1948년 설립되어, 2016년 현재, 전 세계 126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아이섹이 설립 된 계기는 제 2차 세계대전이었다. 1944년, 유럽의 각국에서 스웨덴으로 모인 대학생들은 두 번의 참혹한 세계대전이 일어난 배경에는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세계 평화를 위해 국제정세에 밝은 미래의 리더를 키운다는 목적으로 1948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itshunne@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희망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어깨, 목, 허리, 관절통증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 ③ 비염, 천식, 알레르기, 각종 스포츠 부상
- ④ 만성 편두통, 비만, 과체중
- ⑤ 요통, 어깨, 목, 허리, 관절통증
- ⑥ 임신, 갱년기, 비뇨기, 피부, 미용
- ⑦ 만성 질환, 만성 질환, 만성 질환
- ⑧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
- ⑨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
- ⑩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입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김동원치과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서브웨이, 풋롱 샌드위치 길이 보장한다

지난 2013년 페이스북 사진으로 논란 시작
풋롱 샌드위치가 짧다며 소비자들이 소송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이후 서브웨이가 자사의 대표 브랜드인 풋롱(Footlong, 1풋 길이) 샌드위치의 크기를 확실하게 12인치로 지킬 것을 약속했다.

서브웨이의 풋롱 샌드위치 길이 논란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 호주에 거주하는 10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브웨이의 풋롱 샌드위치가 11인치밖에 안 된다는 사진을 올리면서 인터넷 상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뉴욕 포스트가 서브웨이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뉴욕에서 구입한 서브웨이 풋롱 샌드위치 7개 중 4개가 11인치나 11.5인치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서브웨이에 대한 소송은 지난해 10월 사전 판결이 나면서 일단락 되었고, 지난 25일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다. 법원은 앞으로 4년 동안 서브웨이에서 판매되는 풋롱 샌드위치가 최소한 12인치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집단 소송을 진행한 원고 측에게 변호사비 52만 달러와 1인당 500달러씩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집단 소송 변호인단의 공동 수석 변호사인 토마스 짐머만은 “(이번 소송에서) 급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웠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미 증거를 먹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서브웨이는 성명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서브웨이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며 “우리는 방해받지 않고 앞으로 더욱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풋롱 샌드위치가 12

인치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 밝혔다.

서브웨이는 풋롱 샌드위치와 6인치 샌드위치가 정확한 길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모든 서브웨이 지점에 내린 상태다. 또한 서브웨이를 방문한 손님이 원할 경우 측척에서 길이를 잴 수 있도록 12인치자를 매장에 비치해 놓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서브웨이 샌드위치가 광고와 같이 풋롱 샌드위치는 12인치 길이를 지킬 것을 약속했다



주말에 새벽 2시 30분까지 운행되던 전철 심야 연장 운행 서비스가 종료된다

MBTA 주말 연장 서비스 3월 18일에 종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주말에 새벽 늦은 시간까지 연장 운행되던 MBTA의 시험 서비스가 조만간 종료될 예정이다. MBTA 이사회는 지난 29일, 주말 연장 운행 서비스를 종료하는 내용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현재 MBTA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새벽 2시 30분까지 전철을 연장 운행하고 있다. MBTA의 주말 심야 연장 운행 서비스는 2014년 3월에 시험적으로 도입되었다. 전철은 지금까지 주말 연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버스는 2015년 6월에 연장 운행이 중단되었다.

MBTA 심야 연장 운행은 3월

18일 새벽까지만 운행되며, 그 이후에는 주말에도 정상적인 스케줄대로 전철이 운행된다.

심야 연장 운행 서비스가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이용자 수의 감소에 따른 비용 부담이다. MBTA에 따르면 주말 연장 운행 이용자 수는 처음 도입 당시보다 점차 줄어들어, 2015 회계연도에는 1,40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

MBTA는 주말 연장 운행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비롯하여 운영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최대한 줄여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재투자할 방침이다.

jsi@bostonkorea.com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Somerville 5 Family \$ 999,900
연도별 \$700,000, 주거면적 3072 sq. ft. 현대화되어 50년 관리, Quaker Village hard oak floors, granite counter, stainless appliances, Central Air Conditioning and in-unit laundry, 광택이 있는 4차.



Brookline 2 Family \$ 1,100,000
Townhouse, 주거면적 2300sq, 대지면적 4000sq, 멋진 학교, 잘 관리된 정원 Green Line D 근접, 2차 2차의 위치, 풀 근접, 5 year Roof, 현대화된 heating system, 2차



Newton 2 Family \$749,900
2가구 지붕이 있는 풀 수급 약 95,000, 대지 면적 8500 sq. ft, 난방 \$6000



Newton \$1,200,000
2가구집주, 연수입 \$81,500, 대지면적 20000 sq. ft, 현대화된 정원 피어 있음, 연도별이 멋진 위치(T 근접, 보스톤힐리지



Newton \$1,999,000
30년 새 집, 최고 학교, 주거면적 5000sq. ft, 대지면적 10000 sq. ft, 2차, 화장실 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Newton 9999,000
2015년 새 집, 4차 4차 화장실 3개, 멋진 학교, 보기도 좋은 가격, 주거 면적 3000sq. ft, 대지 면적 7000 sq. ft,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Reading \$ 385,000
3차 3차 콘도 콘트, 멋진 학교, 편리한 교통, 연도별보다 저렴한 대지면적, 2차, 화장실 2개, 주거면적 1300sq. ft, 30년째 되는 한 풀너트 남향 95 고도로 콘트, Garage Parking



Burlington \$ 589,000
2015년 새 집, 2차, 화장실 2.5개, 주거 면적 2000sq. ft, 대지 면적 1075 sq. ft, Heart of the city 근접.



Boston Fenway \$ 364,000
2차 2차, 화장실 2개, 주거면적 670sq. ft, 콘도 fee \$ 2000 (Heat, Hot water 포함) 보스톤 중심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inchester \$1,290,000
2015년 새 집 최고의 학교 4차 화장실 4.5개, 주거면적 4000sq. ft, 대지면적 17500sq. ft, 이후 바닥 최고의 학교, 편리한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트럼프 319 · 크루즈 226...확보 대의원 '추격 가능성'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공화당의 슈퍼화요일 경선 레이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 승리를 거뒀음에도 대의원 수에서는 현재까지 테드 크루즈 후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화요일 경선까지 모두 마친 2일 현재 트럼프는 총 319명, 크루즈는 226명의 대의원을 확보했다. 차이가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지지 대의원 1000명을 넘어서 이미 5부 능선에 도달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크게 대조되는 부분이다.

공화당 본선 진출을 위해서는 전체 대의원(2472명)의 과반인 최소 1237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크루즈는 전날 슈퍼화요일 경선에서 고향인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알래스카 등 3개주에서 승리를 거머쥐

었다. 텍사스는 대의원이 155명이나 배정된 대형주로 크루즈는 이곳에서 압승하면서 한번에 99명을 확보해 격차를 좁힐 수 있었다.

루비오는 미네소타 코커스에서 소중한 첫 승을 거두며 현재까지 110명의 대의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아직 35개주 경선이 남은 현재 3명간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범위내에 있다는 분석이다.

현지매체의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는 남은 대의원 중 52%의 지지를 확보해야만 공화당 본선행 티켓을 거머쥌 수 있게 된다.

폭스뉴스는 루비오가 자신의 지역구인 플로리다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하고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가 오하이오에서 이길 경우 트럼프가 다른 곳에서 승리한다해도 대의원 숫자를

역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측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대의원 1052명을 확보해 현재까지 427명을 모은 샌더스 후보에 압도하며 이미 승부를 결정 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민주당 후보의 대의원수가 이처럼 높은 것은 슈퍼대의원(super delegates)이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이다.

슈퍼대의원은 민주당에서 현직 정·부통령, 상·하원의원 등 전현직 지도부 인사를 포함한 비선언 대의원으로 자유롭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민주당 슈퍼대의원은 총 713명이며 본선 진출에 필요한 대의원수는 최소 2383명이다.

chung@news1.kr

현재 확보한 대의원 집계 R 공화당 D 민주당

본선 진출에 필요한 대의원 수 : 총 2472명 중 최소 1237명



본선 진출에 필요한 대의원 수 : 총 4765명 중 최소 2383명



"롬니, 트럼프 대항 후보 단일화 입장 밝힐 듯"-CNN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오는 3일 미 공화 대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연설을 한다고 미 CNN이 보도했다.

현지 시간 오전 11시 30분 유타대학교에서 진행될 이날 연설에서 롬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공화당을 대표하기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란 점을 특히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롬니가 트럼프를 "추격할 것 (go after)"이라고 말했다.

이날 롬니가 지지후보를 밝힐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CNN은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롬니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이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이 대안이란 것을 주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롬니의 이 같은 계획에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그는 "실패한 대선 후보 미트 롬니가 나를 비판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한다"면서 "버락 오바마에게 두들겨 맞았던 남자의 절박한 몸부림이다"고 말했다.

yjw@news1.kr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100% Real Estate Professionals**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미네아폴리스 New Star Realty의 캐나다 대표 - 가.
10년 이상 보스턴 지역 최고의 실적을 올린 이민(MBA)을 취득한 전문 부동산 전문가로서, 뉴스타 리얼티의 최고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금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10년 이상의 기존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가격에 집과 사업에 투자하도록 도와드립니다.

Lexington Office
43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95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0
Tel: (617) 559-4995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 이민 및 사업 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euengram

집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출세가 적기

집을 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좋은 조건입니다. 현재 저자율이 낮은 편이며 집 값은 점점 오르는 추세입니다. real.com에서는 올해(2016년) 보스턴 지역의 집 값이 약 6%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및 연방정부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모기지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 현재 3.56%(30년 fixed)로 2015년 4월경 이후 최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데드 마진은 한국과 달리 전세가 없고, 월세비가 한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집을 구매해서 임대비로 나가는 돈을 투자금으로 상환하고, 세금을 내고, 유지가 가능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미국 부동산 투자가 부동산 경기가 점점 회복이 광어 따라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8년 이상 보스턴에 거주 분들의 집 구입을 영유합니다. 보스턴과 가까운 지역은 타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트리로 방2 +화2 1500 SF의 권리는 최소 \$ 2,400 이상을 요구하며 한국 좋은 곳들의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들은 3,000불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 \$401,000 달러
다운페이 \$100,000 달러
용자금액 \$300,000 달러
용자 비율 4.5% (현재 기준), HOA(콘도 관리비) 매달 \$300, Home Insurance : 800\$/yr
세금등을 합하여 계산하면, 월금 매이먼트가 약 \$237를 나옵니다.

\$100,000불의 다운페이로 40년분 정도의 콘도나 타운홈을 구입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투자용 부동산 구입을 제외하고도, 매달 권리로 페이먼트를 내야하고, 할금을 낼 때 생활하는 무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구입하기하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먼저 매달 나가는 임대비를 투자금으로 상환함으로써 해공으로 남아가는 비용을 저축할 수 있고 재산세 및 용자금 원금을 제외한 이자 비용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본이 여유로운 투자자 뿐만 아니라, 무주택 소유자나 어느 정도의 다운페이를 통해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 또한 많은 고민이나 부담없이 부동산 구입을 희망 적기입니다. 월별 집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권리로 나가는 돈 보다는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매상과 달리 모기지물도 현재는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최고 (8.5% 까지) 금리를 때도 집 가격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은 모기지율이 상승하는 것보다 향후 집값이 더 오를 전망이 우세합니다. 참고로 현재 보스턴 중심 지역의 콘도는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매달로 나오는 값 보다 높게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시면 뉴스와 부동산의 GINA CHOI 에게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클린턴 · 트럼프 슈퍼화요일 잡고 승세 굳혀...고지가 보인다

(서울=뉴스1) 정이나, 최종일 기자 = 미국 민주, 공화 양당의 최종 후보로 지명되기 위한 최대 승부처 슈퍼화요일(Super Tuesday) 경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압승을 거뒀다. 트럼프와 클린턴이 경쟁자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면서 오는 11월에 예정된 본선에서 두 주자 양당 대표로 백악관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최종 대결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클린턴 · 트럼프...최대 승부처서 타후보 압도

CNN,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공화당 경선이 치러진 11개주 가운데 앨라배마(대의원수 50명), 조지아(76명), 매사추세츠(42명), 테네시(58명), 버지니아(49명), 버몬트(16명), 아칸소(40명) 7개주에서 우승했다.

28명이 대의원이 걸린 알래스카 코커스(개표 56% 완료)에서는 트럼프가 선두를 달리다 현재는 크루즈가 36%의 득표율로 1위이다. 트럼프는 33%로 추격중이다. 또다른 경선지인 콜로라도 코커스의 결과는 다음달 9일 나온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대의원수가 가장 많은 텍사스(155명)에 이어 오클라호마(43명)에서도 승리하면서 공화당 경선이 장기 레이스가 될 수도 있음을 입증했다. 알래스카마저 잡으면 그의 기세는 더욱 도드라진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은 미네소타(38명) 프라이머리에서 이기며 경선 레이스에서 소중한 첫 승을 거뒀다.

민주당에서 클린턴은 경선지역 11개 주, 1개 지역 가운데 앨라배마(53명), 아칸소(32명), 조지아(102명), 테네시

(67명), 텍사스(222명), 버지니아(95명), 매사추세츠(91명) 등 7개주와 미국령 사모아(6명)에서 이겼다. 흑인들의 지지가 승리의 동력으로 분석된다.

클린턴의 맞수로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은 지역구인 버몬트(16명)를 포함해 오클라호마(38명), 콜로라도(66명), 미네소타(77명) 등 총 4개주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미 동부 기준 2일 오전 2시11분 현재 트럼프는 슈퍼화요일 경선에서 최소 192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현재까지 총 274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루즈는 슈퍼화요일 경선에서 132명을 얻어 모두 149명의 대의원을 확보했으며 루비오는 66명을 추가해 82명을 확보했다. 이밖에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와의 의사출신 벤 카슨도 각각 19명, 3명을 추가해 모두 25명, 8명의 대의원을 손에 넣었다.

◇클린턴 '트럼프 나와'

민주당 측에서는 클린턴이 대의원 453명을 더해 총 544명(슈퍼대의원 제외)을 확보했으며 샌더스는 284명을 추가 확보해 349명을 얻게 됐다. 지역 투표 결과에 구애받지 않는 슈퍼대의원에서는 현재까지 클린턴이 457명, 샌더스가 22명을 확보했다. 이를 더하면 클린턴이 확보한 대의원은 1000명이 넘어 이미 후보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선 최종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은 공화당 최소 1237명, 민주당 최소 2383명이다.

이날 클린턴은 압승이 전망되자 연설에서 트럼프를 직접 겨냥했다. 샌더스는 더 이상 자신의 적수가 아니라는 의중이 담겼다. 그는 "이 나라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혼자만 보려는 사람들, 혹은 한 방식만 찬양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또 "미국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구멍이 난 것들을 채우고 깨진 곳을 강하게 만들어 유대 끈을 조여매야 한다"고 자축했다.

◇싸움 끝까지 않았다...승부는 지금부터

트럼프의 질주로 공화당 지도부의 우려는 더욱 깊어졌다. 공화당 기득권층에서는 트럼프가 최종 후보로 지명되면 공화당은 절멸(annihilation) 위기에 처할 것이라 우려감이 팽배하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는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나는 공화당을 통합할 사람(unifier)"이라며 "이번 경선이 모두 끝난 뒤 나는 한 사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추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 의장을 언급하며 "그와 잘 지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자신을 지지함으로써 크루즈와 루비오로 지지기반이 분열된 현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반면, 트럼프의 경쟁자인 루비오와 크루즈는 트럼프의 기세를 차단하고 반(反) 트럼프 표를 결집시키려고 부단하게 애를 써왔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트럼프의 기세를 꺾어놓는 데서 크게 애를 먹고 있다. 이날 앞서 발표된 CNN/ORC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전국 지지율에서 49%로 압도적 선두를 기록했으며 루비오는 16%, 크루즈

는 15%에 그쳤다.

이에 크루즈는 반트럼프표가 자신으로 결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텍사스 지지자들에게 "필드가 나뉘어 있을수록 트럼프가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는 공화당원을 비롯한 보수주의자와 국가 전체에 재앙이다"고 말했다.

이어 루비오를 겨냥해 "오늘밤이 지나면 우리 선거 캠프가 도널드 트럼프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 하나의 주에서도 이기지 못하고 많은 대의원 수를

확보하지 못한 후보에게 함께 힘을 모아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샌더스 후보 또한 승부는 계속된다고 맞섰다. 샌더스는 "이번 선거는 승자독식제가 아니다"라며 "득표율이 52%든 48%든 대의원 수는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 수백명의 대의원을 얻을 것이다"이라며 "정의와 평화를 위해 끝까지 경쟁하겠다"고 강조했다.

lchung@news1.kr

美 슈퍼화요일 경선 결과

R 공화당 D 민주당

주	클린턴	샌더스	트럼프	크루즈	루비오	케이시
앨라배마	승리		승리			
알래스카						
아칸소	승리		승리			
콜로라도		승리				
조지아	승리		승리			
매사추세츠	승리		승리			
미네소타		승리			승리	
오클라호마		승리		승리		
테네시	승리		승리			
텍사스	승리			승리		
버몬트		승리	승리			
버지니아	승리		승리			
사모아	승리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ayton St. 10 min / Newton 20 min
E-mail: sunautobody@yaohoo.com



크레딧 교정,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only **\$87**로 전문적인 고의서비스 (per Month, FPP) \$499 (1 Year Money Back)

Collection / Late Payment / Charge Off / Bankruptcy / Judgement / Lien / Repossession / Foreclosure / Bankruptcy

가능 최고 할인 수 있는 크레딧 교정 전문 회사입니다

1. 크레딧 상담: 크레딧 교정 전문 컨설턴트 (Since 2004)
2. 크레딧 상담: 무료 전화 상담 www.creditrepair.com 800 rate 4u
3. 크레딧 상담: 크레딧 교정 서비스 무료 상담 상담은 온라인으로 진행
4. 크레딧 상담: 크레딧 교정 서비스 무료 상담 상담은 온라인으로 진행
5. 크레딧 상담: 크레딧 교정 서비스 무료 상담 상담은 온라인으로 진행
6. 크레딧 상담: 크레딧 교정 서비스 무료 상담 상담은 온라인으로 진행
7. 크레딧 상담: 크레딧 교정 서비스 무료 상담 상담은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 신속한 상담과 1년간 환불 보장

1. 크레딧 교정 비용: \$87 / Month, \$499 / 1 Year
2. 신속한 결과: 일반에 비해 5개월 단위로 빠른 상담입니다. Hard case 지 경우 약 3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과 동시에 크레딧 점수 상승 프로그램
3. 1년간 크레딧 서비스: 크레딧 교정 서비스로 가입하면 상담에서 1년간 크레딧 특별관리
4. 환불보장: 크레딧 점수가 상승하지 않을 경우 1년내에 즉시 환불 보장

비밀 상담에 상담합니다 한국어 상담 가능 **T 617.921.5127**
0980709 (Over Revolution Specialist)

크레딧 교정 상담: www.creditrepair.com www.creditrepair.com www.creditrepair.com
North Ave www.creditrepair.com www.creditrepair.com
Email: sunautobody@yaohoo.com 101 Harvard Square Suite 201, Cambridge, MA 02138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청문회 오른 '암호해제 논란'...애플 · FBI '팽팽'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애플과 미 연방수사국(FBI)이 1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만났다. 양측은 모두 이번 사건이 향후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들며 팽팽하게 맞섰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수사당국이 테러범의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에 접속하지 못할 경우 미국인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코미 국장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FBI의 권한이 점차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조사관이 접근 불가능한 "미국인의 삶에 영장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희생을 초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 총격테러범의 아이폰 암호해제를 둘러싼 이번 사건이 유사한 다른 사건을 다룰 때 IT기업과의 협력을 요청할 잠재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루스 시웰 애플 선임부사장 겸 법무실장은 "암호화가 법률 집행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맞섰다.

시웰 부사장은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FBI의 요청대로 모든 아이폰에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해커와 정부 감시에 사용자들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플이 마케팅의 목적으로 FBI 암호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에 반박하며 "마케팅이나 흥

보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폰 사용자 수억명의 프라이버시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웰 부사장은 "이는 단순히 샌버나디노 사건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아이폰 안보와 안전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FBI의 요구대로 아이폰 백도어를 만들 경우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를 남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코미 국장은 FBI는 총영장법(All Writs Act)에 따른 애플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일 뿐 정부 감시권 확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애플의 보안기능을 "사나운 방호견"으로 비유하며 "애플에 백도어(back door)를 요구하는 게 아니

다. 아이폰에는 이미 문이 있고, 우리는 단지 애플에 그 사나운 방호견을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과 FBI 측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뉴욕 연방법원은 브루클린 마약범 수사와 관련해 FBI의 애플에 아이폰 잠금해제 요청은 지나친 월권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이 FBI 요청에 따라 애플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명령한 것과는 대치되는 판결이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페이스북 왓츠앱을 통한 마약 거래 관련 통신내역을 제출하라는 수사당국의 명령을 거부한 디에고 조단 페이스북 남미 부사장이 체포돼 애플과 동일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yeoulim@news1.kr



미국 워싱턴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브루스 시웰 애플 선임부사장 겸 법무실장



"초과공급 해소돼도 유가 못 오른다"... 재고 10억 배럴

IEA, 내년까지 재고 증가세 지속... "저유가 장기화"

(서울=뉴스1) 황윤정 기자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말까지 전세계적으로 원유 재고가 3700만배럴 늘어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의 마이크 윌트너는 1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원유 시장이 수급 균형을 되찾더라도 원유 재고가 유가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과거의 사례를 분석해, 쌓여만 가는 원유 재고가 유가 반등을 저지할 것이라고 결론냈다. 골드만삭스의 제프 쿨리 원자재 담당 연구원은 "원유 재고 수준이 정상화될 때까지 저유가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때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며 원유가 초과 공급된 적이 있다. 당시 두 번에 걸쳐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 합의에 나섰지만, 같은 해 12월 국제유가는 10달러 아래로 추락했다. 1999년에 접어들어 선진국들의 원유 재고가 감

소함에 따라 유가도 제자리를 찾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말까지 전세계적으로 원유 재고가 3700만배럴 늘어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며 유가 반등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컨설팅 업체 JBC에너지에 따르면,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크게 감소해 빠르면 올해 여름부터 원유 재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JBC에너지는 오는 6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이 원유 초과 공급 상황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IEA가 추정했던 것보다 원유 재고가 실제로 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원자재 담당 연구원 폴 홀스넬은 "추정치와 실제치의 차이는 수요는 과소계상하고 공급은 과대계상했기 때문"이라며 "시장의 기대보다 빨리 초과 공급이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ung@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위생대학원 석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학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노화를 알리는 '주름', 좋은 습관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스타동안 성형외과피부과' ... "좋은 습관 길들이면, 주름 생성되는 시간 늦출 수 있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즘은 빠르면 20대 후반부터 40대 중년 남성이나 여성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건강과 주름에 대한 걱정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노화를 알리는 신호로 '늙고 있다.' 라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

일반적인 여성들의 경우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보다도 주름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주름을 예방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피부관리의 첫 걸음, 가장 기본적인 자외선 차단 : 피부 관리를 위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외선 차단이다.

여름에는 강렬한 햇빛 때문에 모두 차단에 신경을 쓰지만 반면에 겨울에는 자외선 차단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면 더욱 피부를 해롭게 작용하므로 차단에 신경 써야 한다. 또한 스키장에서 눈에 의해 몇 배 강력한 자외선에 노출되기 시위 특히 주의해야 한다.

◎ 건조한 겨울 날씨, 물을 섭취하자 : 물을 마시는 것도 주름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체내에 쌓인 노폐물이 배출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건조한 날씨에 피부가 푸석해져 잔주름이 생기기 쉬운데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 보습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 하루에 8잔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다.

◎ 노화를 촉진하는 담배는 금물 : 담배는 기호 식품이지만 주름이 걱정된다면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흡연을 하게 되면 수 많은 화학 물질이 흡입되어 피부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든다. 흡연하게 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것도 주름의 큰 원인이 된다. 활성 산소는 노화의 주된 원인, 담배를 끊고 화성 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자.

◎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세요 : 겨울에 샤워나 세안을 할 때에는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기 때문이다. 또한 세안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주름살을 막아주는 천연 장벽 역할을 하는 수분과 유분이 빠지게 된다.

피부를 너무 건조하게 만들면 피부

표면이 거칠어질 뿐만 아니라, 건성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막 생성을 위한 유분이 과다형성되어 트러블 유발에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너무 잦은 세안은 자제하고 세안 후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것이 주름살 예방에 좋은 방법이다.

피지나 체내 노폐물 제거도 중요하지만, 메이크업 잔여물과 외부에 흡착된 오염물질이 주름 생성을 촉진하므로 클렌징에도 꼼꼼하게 신경써야 한다.

◎ 적절한 영양공급도 필수 : 적절한 영양공급도 주름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다. 많은 여성이 다이어트에 집중하다 보니 음식, 특히 단백질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체내에 적절한 양의 단백질이 공급되어야 피부 노화 및 주름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연어는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는데 좋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오메가3로 알려진 필수 지방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필수 지방산은 피부에 영양분을 제공해 주며 주름살을 없애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콩은 피부의 광노화를 막아주는 식품 중 하나로, 콩이 함유된 음식을 6개월만 먹어도 피부의 구조를 바꾸주고 단단하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 충분한 수면으로 피부 재생 :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 역시 피부 관리와 주름 예방을 위한 기본이다. 낮에 힘들고 지친 피부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집중적으로 재생된다. 이때 숙면을 취하면 주름 개선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휴람과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스타동안 성형외과 · 피부과 최호철 원장은 "주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개인의 생활 패턴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예방이 가능하며, 하루라도 빨리 좋은 습

관을 길들이면 주름이 생성되는 시간을 늦출 수 있고, 요즘은 잔주름과 깊은 주름에 따른 적절한 시술을 통해서도 주름개선이 가능하다" 고 덧붙였다.

고국방문 의료 서비스 '휴람-스타동안성형외과' 해외의료사업팀 김수남 팀장은 "겨울을 보고 주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한번쯤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관리를 받아보길 권한다" 고 당부했다.

'스타동안성형외과피부과' 및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그 이외에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전화 617-955-9112)로 하면 된다.



주름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주름을 예방하는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T. 617-955-9112

STAR ★ 동안
피부과·성형외과

대한민국 1등 피부과·성형외과 (구, 이화성형외과)
스타동안 피부과·성형외과

안면 거상술, 리프팅, 지방 흡입술, 지방 이식술을 잘하는 스타동안 피부과성형외과의원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얼굴)	안면거상술 (목포함)	상안검	하안검	절개쌍꺼풀	매몰쌍꺼풀	얼굴지방이식 (PRP포함)	코성형
770만원	880만원	220만원	220만원	198만원	110만원	275만원	330만원
550만원	660만원	132만원	132만원	121만원	88만원	165만원	264만원

부가세(VAT) 포함가

-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아우르는 토탈 피부성형미용 원스탑 서비스
- 한국내 최초 항노화 전문 클리닉 개설 전문의
- 성형수술 후 붓기케어 및 재생관리 서비스
- 모든 수술시 FDA 승인 받은 엄선된 정품 재료사용

Before
&
After

- 한국내 최신 레이저 장비 6대 보유
- 메디컬 케어 서비스 (호텔 내 병원 위치)
- 한국내 최초 수술보증제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채택... "20년래 가장 강력"

중, "한반드 사드 배치 반대"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안보리 15개국의 표결을 거친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의 전통적 동맹국인 중국 주도로 작성됐다.

이번 제재안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지난달 로켓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안으로 평가받는다.

제재안에는 사상 처음으로 유엔 회원국에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의 외화 획득으로 이어질 석탄과 철광석, 금, 티타늄 등 광물 수출을 금지키로 했다.

은행 업무 역시 제한되며 의심 화물을 선적한 항공기의 운항이 금지된다.

매튜 라이크로프트 유엔주재 영국 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북한 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합의한 제재안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크로프트 대사는 "이는 전체 안

보리 내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사만다 파워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가 지난 20년간 부과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실상 대량 살상무기 등 북한으로 물자가 이동하는 통로를 차단한 것이라며 "화물 전체를 검사하는 규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밀수 등 불법 활동에 연관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북한의 무역 대표 16명과 정찰총국 등 12개 기관은 제재 명단에 올랐다.

요시카와 모토히데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 안보리는 제재를 중단하거나 이를 해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결의안 채택은 한반도 핵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포석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가 긴장을 약

화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며 "중국 은 전략과 안보 이익을 해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안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강도에 따라 그 효과가 결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로버타 코헨 미국 부르크스 연구소의 연구원은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정책에 맞기는 것을 그만뒀었다"며 "중국, 나

아가서 러시아는 제재의 전면 시행을 피하기 위한 허점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jjung@news1.kr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2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을 마친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Kalin Bae (배 칼린)



617-981-1542

Umi Cho (추 우미)



508-641-8924



WELLESLEY \$ 1,249,000



NEEDHAM \$ 739,000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ign up for Smart Card today and receive great deals only members can ge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EL.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and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Instagram, & WeChat for special offer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 MART BURLINGTON 43 MIDDLESEX TPKE., BURLINGTON, MA 01803

BURLINGTON WEEKLY SALE MAR. 4TH - MAR. 10TH, 2016

KO-MEX IS WHAT'S NEXT. CRAZY SPICY CHICKEN NACHOS

You may love Mexican but Korean nachos have mucho kick. Try it now!

H마트가 준비한 맛있는 영양간식! 바삭한 나초를 더욱 맛있게 해주는 매콤한 불닭이 나른한 봄철 입맛을 확실히 깨워줍니다.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PRODUCE *picked at the peak of freshness*

<p>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박스 \$24.99 box</p>	<p>Nagaimo 마 \$3.99 lb.</p>	<p>Koimo Sweet Potato \$1.49 lb.</p>
<p>Canadian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캐나다산 유기농 새송이 버섯 \$3.99 8oz./pkg.</p>	<p>Gobo 우영 \$1.99 lb.</p>	<p>수녀원 두부 SOONYEWON Tofu All Varieties/14 - 16oz. \$0.99</p>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Beef Short Rib (Chunk for Stew) 찜갈비 \$11.99 lb.</p>	<p>Boneless Pork Loin for Cutlet 돈까스용 돼지고기 \$4.99 lb.</p>
<p>Chicken Drumstick 치킨 드럼스틱 \$1.49 lb.</p>	<p>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삼겹양지 슬라이스 \$7.99 lb.</p>
<p>Sliced Beef Rib Eye for Bulgoggi 냉동 소불고기 \$6.99 lb.</p>	<p>Marinated Sliced Pork CT Butt 양념 돼지 목살 \$5.99 lb.</p>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SUHYUP Yellowtail 수협 냉동 방어 \$1.99 lb.</p>	<p>Pollock Fillet 동태 전갈 \$1.99 lb.</p>
<p>TONGTONGBAY Dried Sliced Whitebait 통통배 방어포 \$6.99 2.5oz./pkg.</p>	<p>Bronzini 브론지니 \$6.99 lb.</p>
<p>TONG TONGBAY Swai Fillet 통통배 스와이 필렛 \$5.99 2 lbs./pkg.</p>	<p>TONG TONGBAY Dried Shrimp 통통배 두절 건새우 \$6.99 5oz./pkg.</p>

<p>Kyong Gi Medium Grain Rice 경기미 40 lbs. \$29.99</p>	<p>NISHIKI Premium Medium Grain Rice 니시키 쌀 15 lbs. \$14.99</p>	<p>CJ Cooked White Rice CJ 햇반 박스 7.4oz. x 12ea./box \$14.99</p>	<p>GWANGCHUN Green Tea Seaweed Laver 광천 녹차김 선물세트 Regular/Parae - 0.7oz. x 10ea./box \$9.99</p>
<p>CHUNGJUNGONE 100%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정원원 100% 현미 찰고추장 \$12.99 6.6 lbs.</p>	<p>HAIUREUM Seasoned Bean Paste 해오름 사계절 양념쌈장 \$1.99 11 lbs.</p>	<p>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fl.oz. \$14.99</p>	<p>AJINOMOTO Dipping Sauce 아지노모토 디핑 소스 All Varieties/296ml 2\$5 ea./for</p>
<p>HANSANG Dumpling 한상 수제 왕만두 Spicy Veg./Veg. - 1.4 lbs. \$6.99</p>	<p>HAIUREUM Dumpling 해오름 만두 Bukkyung/Kimchi/Veg. - 2.65 lbs. \$4.99</p>	<p>HOUSE Vermont Curry 하우스 버몬트 카레 Hot/Mild/Med. Hot/8.8oz. \$2.99</p>	<p>GLICO Pocky Biscuit Sticks 9cnt/Chocolate - 4.47oz./Strawberry - 4.19oz./pkg. \$2.99 글리코 포키</p>
<p>POPCORNERS Popped Corn Chips All Varieties/5oz. \$0.99 팝코너스 칩</p>	<p>SPAM All Varieties/12oz. 2\$5 ea./for</p>	<p>KITCHEN ART Premium Spoon & Chopsticks Set 5pairs/set \$9.99</p>	<p>ZO JIRUSHI Vacuum Bottle SM-KHE48AG (Smoky Blue)/BA(Black)/0.48L - ea. \$24.99</p>

Indulge In Our Richest Oil yet

THE SECRET OF KOREAN CUISINE "DROPS OF JOY SESAME OIL"

맛과 향이 진하고 고소한 해오름 한방을 참기름으로 더욱 맛있게 요리해 보세요

PRODUCT OF KOREA

대북제재 칼자루 쥔 중국, 결의 이행에 속도낼까

핵개발-주민생활 구분해 제재 적용...제재 기준 자의적 판단 가능성

사드 막고 북핵대화 유인 위해 제재이행을 미와 협상카드로 활용 노골화

(서울=뉴스1) 조영빈, 권혜정 기자 = 석탄 등 광물 매매와 선박운항 차단까지 대북압박 수단이 총동원된 초강력 대북제재안이 도출되며, 결의 이행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번 대북결의안은 전례없이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북한의 자금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자면 중국의 적극적 이행없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90%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석탄 등 광물 수출 금지나 해외 북한은행 폐쇄 등 북한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이번 결의 내용들은 그 자체로 강력한 듯 하지만, 결국 중국이 이 조항들을 면밀하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북한을 정말 아프게 할만한 제재효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다른 나라들은 아무리 제재수위를 높여봤자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결국 중국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일단 이번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결의안이 통과되면 중국은 결의안 내용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과의 금융거래 중단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관측도 전해지고 있다.

다만 중국은 이번 결의 논의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결국 중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제재가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중국이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제재할 것"이라며 "상당 부분에서 북한 민생과 핵개발을 구분해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철 교수도 "북중 간 무역은 상당부분이 밀수형태로 이뤄진다"며 "중국이 어떤 기준을 두고 제재를 이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아픈 제재가 될

수도, 형식적 제재에 그칠수도 있다는 의미다.

칼자루를 쥔 중국 입장에서는 그간 주장해왔던 북미대화를 끌어내기 위해 제재이행 카드를 외교적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미측의 움직임도 변수다.

중국은 이번 대북제재에 동참키로 하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반대 입장과 북미 간 평화협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재 결의 도출을 앞두고 방한했던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 달 28일 대북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대표는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사드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을 천명했고, 미국과 한국측에 이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전면적 제재이행을 다룬 한편으로는 북핵대화과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두 사안이 연계돼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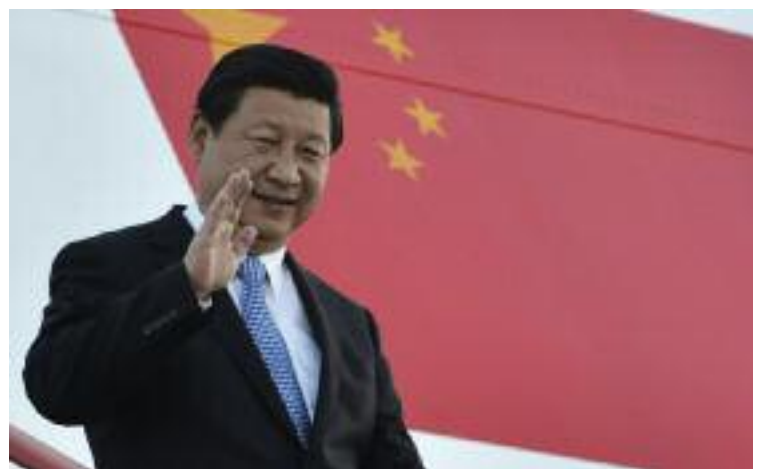
결국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움직임을 가시화하거나, 북한과의 대화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중국의 제재 이행 수준도 낮아질 것이라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미는 비핵화에, 중국은 대화에 외교적 목표를 맞추고 있다"며

"중국은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기 보다는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이번 안보리 결의도출이 중국이 미국에 굴복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미국이 사드배치를 연기하느냐, 대북 대화에 나서느냐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탐색하는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sanghwi@news1.kr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북 제재안' 57일만에 채택...무역회사 대표 등 대상서 제외

(서울=한겨레) 이세훈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응한 새 대북제재 결의를 공식 채택했다. 북한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한 지 57일 만이다. 한국·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의 이견을 해소하고 문안을 절충하느라 역대 대북제재 결의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새 결의는 전문 12개항(안보리의 기본인식)과 본문 52개항(제재 조치와 이행 계획 등), 4개의 부속서로 이뤄졌다. 중국 정부의 요구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 및 유엔 회원국의 6자회담 지지 재확인도 담겼다. 한국 외교부는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재 조치 52개항의 과반에 '결정'이라고 명시됐을 정도로 제재 이행의 법적 의무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라 안팎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1500km에 이르는 국경을 접하고 있고, 북한 대외무역의 90% 남짓을 차지하는 중국 정부의 '이행 의지'가 새 대북제재 결의의 실효성을 좌우하리라는 데 이견이 없다. 안보리의 기존 네 차례 대북제재 결의 이행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3~6개월 정도만 '성의'를 보이고 이후엔 '용통성을 발휘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지적이다.

■ 러시아의 요구로 바뀐 3가지 미·중 합의안에 있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러시아 대표 장성철이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

사국 러시아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한 탓이다. 북한에 항공유 판매·공급 금지와 관련해서도 '북한 민항기의 평양 귀환용 재급유 허용'이 예외조항으로 추가됐다.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모스크바에 왔다가 평양으로 돌아 가려면 재급유가 불가피하다는 러시아의 지적에 따른 조정이다. 고려항공은 중·러에만 취항했는데, 이 예외조항이 항공유 금수의 '구멍'이 될 수도 있다. 러시아는 북한산 석탄 금수 조치와 관련해 제3국산 석탄의 북한 나진항을 통한 수출도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신고해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받았다. 남·북·러 3국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러시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의 이런 수정 요구를 두고 '몽니'라는 평가도 일부 있지만, 자국의 경제적 이해를 고려한 실무적 조정에 가까워 보인다.

■ 북한의 국제금융네트워크 활용 봉쇄 새 결의는 북한 은행의 국외 지점 신규 개설 금지와 기존 국외 지점 90일 안 폐쇄를 의무화했다.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은행계좌 개설도 금지했다. 국제 인도적 지원 단체와 유엔기구의 북한 내 활동에 필요한 송금 업무 정도만 예외로 허용했다. 한국 외교부는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주는 금융제재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이 비디에이 사태 이후 국제금융망을 활용한 정상적 금융거래를 회피하고 있는데다, 수십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국외 금융기관 대부분이 중국에 몰려 있을뿐더러 위장 간판을 달고 송금업무 등을 처리하는 곳이 많아 실효성이 얼마나 높을지 전망이 엇갈린다.

■ 광물·무기거래 금수, 화물검색·추방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 항공유 판매·공급 금지, 북한행·발 화물 '의무 검색', 불법행위 연루 북한 외교관·정부대표와 제3국인 추방,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모든 물품 수출통제('캐치올' 제도 강화) 등은 미·중 합의안이 최종 결의에 그대로 반영됐다. 광물 금수와 화물 검색 또한 중국의 이행 의지가 관건이다. '민생용' 석탄·철수출의 예외적 허용이 '구멍'이 될 수 있다.

■ 북한의 국외 노동자 파송과 인권 침해 논란 새 결의는 전문에서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로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 셈인데, 한국 외교부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짚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국외 파송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주요 외화 소득원으로 꼽히는 국외 파송 노동자들은 중·러를 중심으로 최소 5만에서 최대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노동자 국외 파송 차단 문제는 이번 결의의 제재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nomad@hani.co.kr

북, 단거리 발사체 6발 발사... 대북제재·한미훈련 겨냥

KN-01,02 단거리 미사일 또는 300mm 방사포 가능성 안보리 결의 직후 반발 성격 군 민반의 대비태세...추가 특이동향은 없어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북한군이 3일 오전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오늘 10시경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동해상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기는 올해들어 처음이다.

북한은 모두 6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쏘으며, 이 발사체들은 100~150km를 날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KN-01, KN-02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300mm 방사포 또는 이들 발사체를 모두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이날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4차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

켓) 발사에 대한 제재결의가 이날 새벽 채택된 직후 이뤄진 것이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 논의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움직임과 관련 강하게 반발했던 터라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달 7일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훈련 등 한미합동훈련 개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우리 군이 관련 동향을 계속 추적 감시하면서 민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이날 오전 단거리 발사체 발사 뒤 특이동향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안보리 결의나 한미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비슷한 양상의 도발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bin1981@news1.kr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작은 통증을 참지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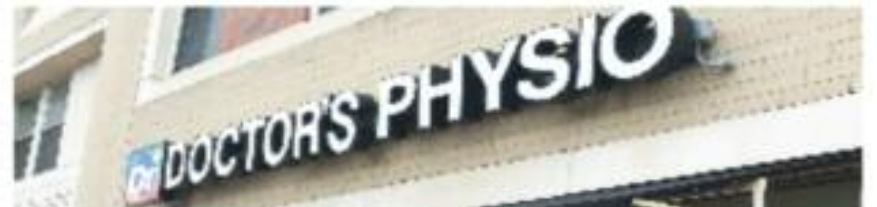
원장 윤창교수를 비롯한 전문 의료진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책임있고 성실한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정형 물리치료, 소아 물리치료, 신경학적 물리치료 및 척추 진단 검사 등을 통해 보스턴 한인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윤창
Dr. Chang Yoon, DPT

닥터스통증병원 대표원장
워싱턴 하버드병원 재활의학과과장
뉴욕 닥터스클리닉 원장
네지니아 한국병원 원장
보스톤 노스어스틴 물리치료학 박사



물리치료, 각종통증치료,
목, 허리 디스크, 관절염
(특급보형)
학성보형, 어빙지보형,
개인보형 PPO, 상해보형



Dr. 닥터스 통증병원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www.GoodPT.com TEL: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NEWS CHANNEL, MDC, OCN, etc.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야 퇴장 속 테러방지법 통과...국정원에 수집권·추적권 부여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가결...야야 찬반 토론서 고성 및 삿대질
야 퇴장한 뒤 규탄 결의대회...20대 국회서 개정 다짐
테러위험인물 감청 허용하고 금융정보 볼 수 있어

(서울=뉴스1) 박상희, 서미선, 이정우 기자 = 우여곡절 끝에 테러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달 23일 본회의에 직권상정됐던 테러방지법은 야당이 극렬 반대하며 표결을 막아왔다.

특히 야당은 47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고 무려 만 8일 동안, 시간으로는 192시간이 넘는 연설을 통해 야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이유를 성토했다.

그러나 전날 야당이 선거구획정안이 이날 처리되지 않을 시 역풍이 불 것을 우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본회의 처리의 길이 열렸다.

그럼에도 막판까지 테러방지법 처리는 쉽지 않았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우며 끝까지 본회의의 표결을 지연시켰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12시간31분 동안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일일이 열거하며 테러방지법 반대를 외쳤다.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고 여당을 상대로 수정을 읊소했다.

결국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시 30분이 넘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수정하겠다고 공언하며 본회의의 단상에서 내려왔다.

이 원내대표가 내려왔지만 여야간 공방은 끝까지 계속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자신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다 야당에 강한 반발을 불렀다.

찬반 토론에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여야는 찬반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진성준 더민주 의원은 "공작정치를 하니가 국정원을 못 믿는 것"이라고 일갈하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동안 떠들었으니 그만하라"고 맞받기도 했다.

이후 테러방지법은 여당의 의도대로 표결에 부쳐졌고 다수인 여당의 힘으로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 1인은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이다.

더민주는 표결이 시작되자 일제히 일어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본회의장을 나선 더민주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민주의 "국민사찰과 민주주의 파괴를 야기하는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한 뒤 "총선 승리 후 테러방지법의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정했다.

테러의 행위는 운항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 파괴하고 손괴를 가하는 행위와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가하는 행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고 폭발시키는 행위로 적시했다.

이 밖에도 원자료를 파괴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

위를 테러로 정했다.

국정원은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근거로 영장없이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영장을 받아 통신수단을 감청할 수 있다. 인터넷상 글에 대한 긴급삭제 요청, 테러 위험이 있는 내·외국인 출국금지도 가능하다.

내국인의 통신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제정안은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 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는 내용이 제정안에 포함됐다.

테러단체를 구성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이 처벌을 받으며 테러를 기획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다른 나라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타인을 테러 관련 혐의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무고 또는 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한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sanghwi@news1.kr



2일 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주호영 의원안)이 상정되자 야당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채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테러방지법 통과 '국정원 정보수집 범위' 논란 전망

국정원 정치적 중립성 담보되지 않는 상황...국내정치 악용 방책 마땅치 않아
국정원 정보수집 불가피한 측면...권한남용 막을 후속조치 주목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여야 간 첨예한 대립속에서 결론내지 못했던 테러방지법이 결국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 입법 절차를 밟게됐다.

가까스로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한 마련된 것이지만, 통과 이후에도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범위와 감시 대상을 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처음 발의됐다. 인권침해 소지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 위협이 그다지 높지 않은 분위기 탓에 그간 의미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해오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 사건이 터지며 논의의 급물살을 탔다.

또 최근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한국을 테러 대상국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며, 한국이 더이상 테러 청정국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해 온 정부·여당에 본격 힘이 실린 것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로 초래된 안보위기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사이버테러와 주요 탈북인

사에 대한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연일 주문한 점 역시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온전히 테러방지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에 활용될 것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여당이 상정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의 지정 및 해제,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정원 산하 국가대테러센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정원이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이나 단체를 판단하고 이를 위한 정보수집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정당과 단체 나아가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등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이미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더 줄 경우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지 않게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초법·불법적인 국정원의 무소불위 조치에, '테러'라는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사유를 명분으로"이라며 "이제 모든 국민에 대한 통신 감청을 통해 '빅 브라더'가 되고 조종자가 되는 '국정원 국가'가 될 날도 머지 않았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반면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을 구현 차원에서 정보수집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 당국의 한 관계자는 "테러방지는 결국 테러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한 정보수집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보수집은 타 기관이 아닌 기존 정보기관에서 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정보수집 권한 남용이 여야 간 쟁점인만큼 관련법안을 활용해 국정원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국정원이 필요에 따라 감청 등 정보수집 활동을 실시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뒤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bin1981@news1.kr

20대 총선 42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거구 부재 사태 62일 만에 해소...20대 총선 253곳 확정

(서울=뉴스1) 박상희, 서미선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대 총선 선거구역표가 첨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처리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해 12월31일 자정을 기해 무효화된 선거구가 62일 만에 새롭게 확정됐다.

아울러 다음달 13일 치러질 총선을 42일 앞둔 시점에서의 확정안 처리다.

개정안에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253곳의 선거구획정안이 담겼다.

시도별 의석수는 △서울 49곳(+1) △부산 18곳 △대구 12곳 △인천 13곳(+1) △광주 8곳 △대전 7(+1) △울산 6곳 △세종 1곳 △경기 60(+8) △강원 8곳(-1) △충북 8곳 △충남 11곳(+1) △전북 10곳(-1) △전남 10곳(-1) △경북 13곳(-2) △경남 16곳 △제주 3곳 등이다.

새로 분구된 선거구는 16곳, 통합된 선거구는 9곳으로 전체적으로

는 7곳의 선거구가 늘어났다. 시·군 단위가 조정된 구역조정은 5곳, 읍·면·동이 변경된 경계조정은 12곳, 명칭이 변경된 선거구는 6곳이다.

부칙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를 지난해 10월31일로 적시했다.

또 이 법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 전까지 존재한 것으로 보고,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지연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 처리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했다.

부칙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에 제출한 것으로 명시했으며 안심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생성해 해당 정당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sanghwi@news1.kr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모용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발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 피로방, 탄력, 밝은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에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A GIFT FOR YOU



최대용 시세이도
컨설팅/교육/모형
홍은희

살생부 이어 당원명부까지...김무성 진퇴양난

준비 안된 '상향식공천' 곳곳 파열음...비례대표 추천권도 공관위가 질 듯

(서울=뉴스1) 차윤주, 이정우, 양새롬 기자 = 여야가 국회 대치상황을 끝내고 3일부터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당원명부 논란으로 다시 시끄럽다.

특정 현역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살생부 과문이 가라앉자마자 당원명부로 또 파열음이 나면서 정치생명을 걸고 상향식공천을 추진해 온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도 한번 더 상처를 입게 됐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지난달 27~28일 각 지역 예비후보자들에게 책임당원 명부를 내려보낸 뒤 취합된 문제점들을 보고했다.

황 사무총장에 따르면 당원명부를 신청해 받은 예비후보자 700여명 중 200여명이 당원명부에 주소불일치, 이

중등재, 소재불명 등 문제가 있다고 신고했다. 이 가운데 명부에 오른 당원 10% 이상이 오류라고 신고된 선거구가 20~30곳에 달했다.

문제가 된 이번 당원명부는 1차로 내려보냈던 명부가 유령당원 등 논란에 책임당원이 구분되지 않아 불공정 시비까지 불거지자 이를 바로잡아 새로 배포한 것이다.

이에 2차 명부에서도 문제가 터지자 "이렇게는 경선을 치를 수 없다"는 불멘소리가 후보자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

이번 총선 지역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의 경선은 책임당원 30%, 일반국민 70% 여론조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책임당원의 표심이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황 사무총장은 "200여곳 중 20~30곳

, 즉 10% 안팎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당협위원장이 없는) 사고지구당이거나 당협위원장이 있음에도 당원관리를 안했던 곳, 지난해 6~7월 이후 당원을 무리하게 증가시킨 곳 등 3~4개 유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유형과 현장을 파악해서 도저히 당원명부 관리에 문제였다. (경선 원칙인) 책임당원 30%, 일반국민 70%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일반국민 100%로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똑같은 지역에서 A예비후보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B후보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처럼 과장보도 됐는데 현장 후보들에게 직접 들으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허술한 당원관리로 불거진 명부 논란이 상향식공천 자체를 뒤흔들 문제는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당원명부 문제는 준비 없는 상향식공천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100% 완전국민경선)로 논의를 시작해 지금의 경선틀을 완성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향식공천이라는 명분만 외쳤지 이를 위한 토양을 깔아놓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선 방식에 대해 위원들간 의견차이가 있음을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하면서 "나는 100% 국민여론조사로 하자는 거고 일부 위원들은 반대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님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명부에) 오류도 있고 신인들이 현저하게 불공평하다"면서 "자칫 현역들이 대거 쉽게 공천받으면 개혁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개혁성과 공평성, 한편으로 당원에 대한 배려까지 고민이 있다"고도 했다.

이번 총선에 처음 도입하는 상향식공천으로 경선 지역이 대거 늘어나지만, 공천 일정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다

. 공천틀을 둘러싼 계과갈등, 선거구 획정 지연 등 국회상황이 맞물려 19대 총선보다 일주일가량 공천 후보자 결

정이 늦어지면서 경선일정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 뒤 기자들과 "시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및 심사 권한은 공관위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비박계인 황 사무총장은 "업무 로드를 봤을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해서 공관위가 그렇게 하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박계 박종희 사무2부총장은 "비례대표 선정은 과거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지역구 의원 심사를 끝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 같은 너댓 명이 단출하게 구성돼서 했었다"며 "그렇게 복잡하게 아니다"고 했다.

chacha@news1.k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굳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종인 "후보자 연대 얘기할 시기 아냐"...'당대당' 통합방점?

"김한길 야권통합에 긍정적인 듯...안철수 반대할 수 밖에 안철수 고립론 제기"에 "누가 그런 얘길했나" 강한 부정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3일 자신의 '야권통합' 제안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와 김한길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간 결이 다른 것 같다고 평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야권통합에 긍정적인 것 같다는 질문에 "김한길 의원께서 긍정적 신호를 보였다고 느끼는데, 당이라고 하는 게 김 의원 혼자 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의견의 일치를 해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확실한 의견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이와 관련, 안 대표를 따로 만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안 대표는 더민주를 오기 전부터 탈당한 동기를 분명히 얘기했다. 본질적으로 그분은 내년 대선에서 후보가 꼭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나간 분"이라며 "지금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야권통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사실상 야권통합이 어려운 만큼 야권연대 제안이 아니냐는 데 대해선 "연대라는 것은 '당대당 연대' 이런 것보다도, 선거가 지역별로 표차가 뚜렷하게 나타날 때, 그 과정에서 후보자 간 필요성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얘기"라며 "현재로서 연대를 당 차원에서 얘기할 시기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또 혹시 복당을 희망하는 인사가 있다면 받아줄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선 "복당보다는 통합을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복당인사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야권통합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제(2일) 통합하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 어떻게 이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야권통합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야합을 벌인다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선 "그게 왜 야합이나"면서 "정상적으로 통합을 하자는 얘길 야합이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발끈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철수

고립론'에 대해선 "누가 그런 얘길 했느냐. 아니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와 담소를 나누는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질문을 받고 "나는 그런 뜻으로 (야합)한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cho11757@news1.kr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와 악수를 하고 있다

나이키, 한국 우롱했나... 3·1절에 일전범기 연상 신발 발매

지난달 27일부터 전범기 모티브 '에어조던12 레트로 더마스터' 판매 "독일 나치 하켄크로이츠와 동급, 한국 소비자들 우습게 보는 처사"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나이키가 3·1절에 일본 전범기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한 에어조던12 시리즈 농구화를 발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월 스포츠용품 업체에 따르면 나이키는 지난 2월 27일부터 '에어조던12 레트로 더마스터'를 국내외에서 동시에 발매했다. 이 신발은 농구 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의 농구화 시리즈의 한정판으로 국내에서는 정가 22만9000원에 판매했다.

발매 개시에 앞서 서울 이태원이나 압구정점에는 수십미터 이상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나이키는 3·1절 당일인 지난 1일에도 일부 지방 매장에서 이 농구화를 판매했다.

조던12 시리즈 농구화는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 당시 사용하던 전범기를 연상하게 하는 디자인을 모티브로 만들어져 발매 때마다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다. 일본 전범기는 깃발 중심부 붉은 원에서 광선이 뻗어나가는 도안의 깃발이다. 에어조던12의 옆면을 봤을 때 신발코에서부터 중간까지가 전범기 가운데 태양을, 그위에 뻗어나가는 사선은 전범기의 광선을 연상케 한

다. 하지만 에어조던 시리즈는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어 좋지 않은 여론에도 제품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신발을 수집하고 있어 구매는 하지만 기분은 썩 좋지 않다는 것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나도 조던12탄을 사긴 했지만 삼일절에 제품을 판매하는 나이키의 패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현재 이 제품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정가의 2배가 넘는 판매가 40만원 후반대에서 50만원 중반대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한 소비자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조던12 디자인의 의미를 알고 나서는 이 신발을 신지 않는다"며 "나이키가 한국에서 삼일절에 전범기 디자인 신발을 판매하는 것은 한국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고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던12 시리즈는 처음 출시된 1996년에는 큰 논란이 일지는 않았다. 하지만 2009년 '라이징 선' 버전이 출시

되면서 비난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신발 안쪽 밑창에 누가 봐도 전범기와 같은 디자인 적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불매운동도 일어났다. 나이키는 국내에서는 밑창에 전범기 디자인이 빠진 제품을 판매했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의 집중포화를 피할 수 없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 중국, 필리핀 등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국가에서는 전범기 노출이나 도안은 금기시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전범기는 독일 나치 문양인 하켄크로이츠와 동급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전범기에 너무 관대해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나이키 에어조던12 1996년 초기 버전



27일부터 발매한 '에어조던12 레트로 더마스터'

선관위,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에 '가수 설현' 위촉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인기 걸그룹 AOA의 멤버 설현을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어 "가수이자 배우, 모델로서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설현(22)씨가 선관위와 함께 공감·소통·참여를 통한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가수 설현은 "더 많은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힘을 보태고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설현은 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에서 모의 사전투표를 직접 체험했다.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설현은 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위한 방송·CF 등 각종 홍보물에 모델로 출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여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펼칠 전



가수 설현(걸그룹 AOA).

망이다. 아울러 설현과 함께 지상과 방송 3사 메인뉴스 김민정(KBS), 배현진(MBC), 정미선(SBS) 앵커도 이날 홍보대사에 위촉되며, 다양한 홍보활동에 나서게 됐다.

20대 총선의 홍보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한 중앙선관위는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여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rusty@news1.kr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더 나은 봄,
서울설렁탕의 미션,
특별 보양, 특출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r Lexington Ill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7.8888
SeoulFoxBoston.com

Salons by JC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영희와 귀여운 손잡고 머리맡을
복귀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탁 트리트먼트



2017년 1월 1일부터
H-Mart 앞
Middlesex Commons Mall에
위치한 Salons by JC로 이전

남자컷 25불/여자컷 35불/파마 75불 부터
다지깎 130불 부터/개국된 해피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희 양구경 김영남 미운실, 쫄레오빌 머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븐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675 Lowell St. Rm #1 Lexington MA 02420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Daveluy) Parish of Boston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명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둘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총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이요 권리와 기쁨의 터니라 (딤후 3:15)

주일예배 / 오후 8:00 금요기도회 / 저녁 7:30
유대/유지/초등/중고등부예배/청년부모임
Grace Bible Study / 수요일 7:30
D.C.영양대법정교실 / 주일 오후 4시

담임 목사 / 우시향
7 Clemen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가나안 부동산
Broker/Owner of RE/MAX

www.ganainre.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트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6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 son2323@gmail.com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Ph.D.
New York Univ. M.F.S.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Pl. Lynn, MA 01904 Tel: (978) 985-0275, (978) 944-3404
www.boston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817.969.5809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데스크 US 월드 링컨 프로
ej.usgwf@gmail.com

857.600.6755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s,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의 나사렛에 따라 진리 말씀의 열매를 맺으실 때 무너져나갑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공생, 부활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십시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찬양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양예배 주일오후 12:30
속회예배 수-주일 속회별
유년예배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lex Efi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지사부터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와 Efit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결제처리 시스템을 도입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UMS 대표이사 겸 마케팅 **이선호**
781.266.7245

XOOM ENERGY SLP Inc. Xoom Partner

20~30%
전기요금에 National Grid와 συνεργασία
싸질 수 있습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에너지 규제 강화로 인해 전기와 천연가스, 재생 에너지를 XOOM Energy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XOOM Energy는 미국에서 가장 큰 에너지 Reseller로서 현재 미국 16개주에 있는 70만명에게 구약간에서 비즈니스와 개인주택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절약 내역은
www.xoomenergy.com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81.266.7245
한국어 상담 : 이선호 지사장 / energy@xoom.com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성한 전통사자직,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차귀 케이크
- 국나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더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이지나
변호사



이소연
변호사



박소나
변호사



Yoon Yeon
공익연수생



박경영
서기관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패트리어츠 - 브래디, 2년 계약 연장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쿼터백 탐 브래디가 기존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브래디는 미디어에서 40대까지 현역 선수로 활동하는 게 꿈이라고 말해 왔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ESPN은 지난 29일, 패트리어츠와 브래디가 2019 시즌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기존 계약은 2017 시즌이 끝나면 종료될 예정이었다. 브래디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액수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브래디는 지난 2015 시즌에 38세의 나이로 4,770 패싱 야드, 36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7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했다. 브래디는 패트리어츠를 5년 연속으로 AFC 챔피언십까지 진출시켰으며, 7년 연속으로 프로볼 선수에 선발되었다. 브래디는 역대 쿼터백 중 통산 터치다운 패스가 4번째로 많은 선수다.

브래디에게 2015 시즌은 시작이 좋지 않았다. 브래디는 2015 프리시즌에 훈련에 집중하기 보다는 NFL을 상대로 한 소송에 많은 시간을 뺏겼다. 디플릿게이트 연루 혐의로 브래디는 NFL로부터 4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법정 소송 끝에 출장 정지 처분은 사라졌다. 디플릿게이트 재판은

NFL에서 항소하여 현재 항소 심리가 진행 중이다.

브래디는 시즌 중반에 가장 유력한 MVP 후보로 꼽힐 만큼 많은 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시즌 마무리는 많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2015 AFC 챔피언십 경기는 브래디의 경력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경기 플레이오프 경기로 꼽힐만한 경기다.

브래디는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56번의 패스 시도에 27번 성공, 310야드, 1개의 터치다운을 성공 시킬 동안 2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했다. 패트리어츠의 오펜시브 라인이 브래디를 보호하지 못해 4번의 섹과 23번의 히트를 허용한 것이 가장 큰 패인이다.

그러나 AFC 챔피언십 경기 이후 브래디는 인터뷰에서 "쿼터백으로 경기를 뛰려면 (상대 수비수에게) 부딪히는 것은 당연하다. 그걸 감수하고 풋볼을 패스해야 한다. 내가 할 일을 더 잘했어야 한다는 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고 말했다.

이번에 합의된 브래디의 계약 연장은 과거 브래디와 패트리어츠 사이의 계약과 비슷한 점이 많아 보인다. 2014년 12월에는 브래디가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기본 연봉을 삭감하는데 동의했다. 2013년 2월에는 브래디의 계약이 2017시즌까지 연장되었다.



쿼터백 탐 브래디는 적어도 2019 시즌까지 패트리어츠 유니폼을 입는다

패트리어츠는 브래디에게 계약 연장과 함께 연봉 삭감을 제시해 팀 전체의 샐러리 캡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2016년 연봉이 1,500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는 브래디는 비슷한 수준의 다른 쿼터백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연봉을 받고 있다. 브래디의 연봉에 대해서는

패트리어츠가 더 좋은 선수를 보유할 수 있도록 브래디가 자신의 연봉을 희생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패트리어츠는 현재 샐러리 캡에서 1,300만 달러의 여유가 있다. 그리고 2016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끝나는 제이미 폴린스, 단테 하이타워, 찬들러 존

스, 말콤 버틀러 같은 선수들을 잡아야 한다. 이미 리그 정상급 선수로 성장한 젊은 선수들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팀 내에서 가장 연봉 수준이 높은 브래디의 연봉부터 조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jsi@bostonkorea.com

[LPGA] 박인비, HSBC 챔피언스 1R 공동 3위... '등 부상' 전인지 불참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복귀전에서의 아쉬움을 딛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HSBC 챔피언스(총상금 150만달러) 1라운드에서 공동 3위에 올랐다.

박인비는 3일 싱가포르의 센토사 골프장 세라폰코스(파72·6600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쳤다.

박인비는 호주교포 이민지(20·하나금융그룹), 캔디 쿵(대만) 등 공동 선두(5언더파 67타)에 1타 뒤진 공동 3위를 마크했다.

시즌 개막전인 퓨어 실크 바하마에서 등 부상을 입었던 박인비는 한 달 간 휴식을 취한 뒤 지난 주 혼다 타이랜드 클래식에서 복귀했다. 대회 초반 부진하기도 했지만 박인비는 3, 4라운드에서의 선전으로 공동 30위에 이름을 올렸다.

퓨어 실크 바하마에서의 상승세를 이은 박인비는 1라운드부터 좋은 경기력을 뽐냈다. 지난 해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박인비는 대회 2연패와 함께 시즌 첫 승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박인비는 첫 9홀에서 버디 1개를 잡는데

그쳤다. 하지만 보기를 한 개도 범하지 않으면서 상위권 도약을 노렸다.

10번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한 박인비는 이어 13번홀(파4)과 16번홀(파4)에서도 버디를 잡으면서 순위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렸다.

17번홀(파3)에서 보기로 주춤했지만 박인비는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버디를 낚아 기분 좋게 라운드를 마무리했다.

지난 주 퓨어 실크 바하마에서 공동 8위를 마크했던 이민지는 이날 공동 선두에 오르면서 2개 대회 연속 톱10 진입과 시즌 첫 우승을 바라보게 됐다. 이민지는 1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4개, 보기 1개 등을 기록하면서 5언더파 67타를 쳤다.

이외에도 다수의 한국 선수들이 상위권에 오르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이미림(27·NH투자증권), 이일희(28·볼빅), 이미향(23·KB금융그룹), 안선주(28) 등은 나란히 3언더파 69타를 쳐 공동 7위에 올랐다.

코츠 골프 챔피언십 챔피언 장하나(24·BC카드)를 비롯, 김효주(21·롯데), 최나연(29·SK텔레콤), 박희영(29·하나금융



박인비(28·KB금융그룹)

그룹), 최윤정(26·볼빅) 등도 2언더파 70타로 공동12위를 마크, 톱10 진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리디아 고(19·뉴질랜드)는 1언더파 71타 공동 27위, 김세영(23·미래에셋)은 1오버파

73타 공동 43위로 다소 부진했다.

한편 신인으로서 최근 좋은 활약을 펼쳐온 전인지(22·하이트진로)는 이번 대회에 등부상으로 출전하지 않았다.

yjra@news1.kr

POSPay

world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촌: AL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촌: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의 매출실적 / 20여 개의 대외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부지사



백영주
617-921-6979



김광오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단독주택 Single Family



\$485,000
Sharon, MA
4 Beds, 2 Baths, 1840 sf.
많이 업데이트된 집
Cul-de-sac, 좋은 로케이션
이현주 401-935-3397



\$595,000
Sharon, MA
4 Beds, 2.5 Bath, 2436 sf.
새집보다 좋은 집
호수가 있음,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 3498 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739,000
Wellesley, MA
3 Beds, 2 Baths, 1656 sf.
Great Location!
조용한 주거환경, 좋은 학군
제니스 리 978-806-6023

콘도 Condo 단독주택 Single Family



\$275,000
North Andover, MA
2 Beds, 2 Baths, 1060 sf.
Top/Penthouse corner unit
Gina Choi 978-866-3248



\$325,000
Fra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650,000
Lexington, MA
3 Beds, 1 Bath, 1188sf.
좋은 학군, 편리한 주거환경
넓은 정원과 대지
OT Kim 617-620-8242



\$519,000
Tewksbury, MA
4 beds, 2.5 baths, 2958 sf.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콘도 Condominium



\$273,900
Maynard, MA
2 Beds, 1.5 Baths, 1930 sf.
four level 타운홈
Anna Jung 617-780-1675



\$210,000
Acton, MA
2 Beds, 1.5 Baths, 1303 sf.
New Roof, siding, HVAC system
신보경 508-361-6064



\$560,000
Boston, MA
1 Bed, 1 Baths, 709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Pre-Sale
Millennium Tower Boston
하이라이즈 콘도
2016 완공예정, 럭셔리콘도
90% Pre-Sold
Boston, MA
다운타운 새 콘도
오피스 781-259-4989

Single Family
\$399,000
Malden, MA
5 Beds, 1.5baths, 1740sf.,
Shell Yu 781-526-2416

Single Family
\$319,900
Maynard, MA
4 Beds, 2baths, 1579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200
Quincy, MA
1 Bed, 1.5 baths, 1093sf.,
Jay Lee 781-654-5281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Gina Choi 978-866-3248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6023

Condo Rental
\$1,600
Acton, MA
2 Bed, 1 bath, 820sf.,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국 최대의 한인 부동산 그룹 / 2008년 1등 / 2009년 1등 / 2010년 1등 / 2011년 1등 / 2012년 1등 / 2013년 1등 / 2014년 1등 / 2015년 1등 / 2016년 1등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Sara You
617-899-356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Nail Salon



\$70,000
Dedham, MA
1200sf. 넓은 주차 공간
6 manicure & 4 pedicure stations
Anna Jung 617-780-1675

Nail Salon



\$500,000
Woburn, MA
1600 sf. 8 mani and 8 pedi
넓은 주차공간
Ana Jung 617-780-1675

Nail Salon



\$110,000
Cambridge, MA
400sf. Porter sq.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500,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Commercial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울스톤, 뉴튼 센터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97,000
Boston, MA
보스톤 유니버시티 근처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499,900
Brookline, MA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Coin Laundry



\$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Drycleaner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Drycleaner



\$475,000
Quincy, MA
10개월된 새 장비
매상 높음, 편리한 교통
이현주(Julie Lee) 401-935-3397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995,000
Westford, MA
Newly set up, Asian food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995,000
Westborough, MA
Asian Restaurant/Bar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495,000
Boston, MA
Alot walk and car traffics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30,000
Cambridge, MA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Sue Rong Tsai 617-792-8842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OT Kim
617-620-8242



Steven Son
617-290-0623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THE BEST GUARDED
SECRET SAUCE”**



THE BEST FRIED CHICKEN IN TOWN

NOW OPEN

DOWNTOWN SALEM

299 Essex Street, Salem, MA, 01970

(978) 594-8256 - facebook.com/bonchondowntownsaalem



Bonchon

© 2016, All rights reserved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정보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경찰서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리즘/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603-89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연구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원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동맹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인협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리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리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치 베델교회	978-274-2369
엠펙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펙스 시온교회	413-549-9200
일주교회	617-642-7403
우스타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일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게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한인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당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ABC골프	603-401-7990
최현정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뱅통/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샬롱	617-413-4560
뷰티룩 헤어샬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알구정동열굴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샬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영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심성군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	--------------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	--------------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치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경주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스아치과	617-471-2184
아이코덴탈	978-459-0594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미코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알병원(병리)	203-330-8080
------------	--------------

국세보석사	617-523-2553
미태석목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미분향 보험	781-325-3406
조종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코스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	--------------

부동산

가나안부동산(손득한)	617-290-0623
김종희부동산	978-866-7789
장현구부동산	617-494-0985
김택은 Realtor	617-678-9330
김현정부동산	617-388-8527
백영주부동산(뉴스타)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원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블부동산(채혜경)	617-868-2253
순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혜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74-2087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조현경부동산	508-249-5838
프루덴셜(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사진관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영스타디오	774-253-1800
스튜디오 주니	617-460-3227

생선가게

매더랜드피시마켓	617-298-2260
매일찬피시마켓	781-862-7984
보스톤피시마켓	617-282-2980
브룩턴피시마켓	508-580-1016
스타피시마켓	617-524-8711
김스피시마켓	617-282-6142
파이스피시마켓	617-522-2028
K씨푸드	781-961-1114

식당

가든하우스	978-691-5448
가주순두부(울스톤)	617-208-8540
가주순두부(케임브리지)	617-864-6868
고향식당	413-586-2682
교토	401-232-3838
KIKU(한&일식)	603-882-8644
가유가	617-566-8888
뉴장수갈비	781-272-3787
다빈	781-860-0171
다오라시	508-587-3920
다이나마이트	603-889-0055
다케무라일식	617-492-6700
리틀부산	978-897-5107
마소바 (Ma Soba)	617-973-6680
만나시	781-648-8878
명동일번지	617-206-3229
미가	860-895-8739
미나도	508-647-0495
미나토 도시	617-731-5200
미소노	617-325-9919
Mr. 도시	617-731-1122
Mr. 도시 (Arlington)	781-643-4175
본촌	617-254-8888
본촌 허버트스퀘어	617-868-0982
북경반점1	617-623-7220
북경반점2	617-254-2775
비빔	617-787-5656
사무라이</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데드햄 네일살롱 테크니션 구함
초보자 환영
T. 312-235-9660

청소하실분 부부 구함
영주권 소지자, 다섯 부부
T. 617-869-1698

입주해서 쌍둥이 돌봐주실 분 구함.
Hmart 근처, T. 323-204-7423
카톡 010-5263-0047 (1월 17일 이후)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홈스테이, 룸렌트 스톤햄
93번 고속도로 3분 거리
T. 978-609-8749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N[매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지압소
성업중인 가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김에게 연락주세요)
T. 864-605-7045

N[구인]
플로리다지역 직선빌
교포환영,숙소제공함
T. 770-712-3973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성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이쁨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풍격을 더하는 화첩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유기견시와 천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더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디카프리오, 징크스 깨고 오스카 주연상

(서울=뉴스1스타) 윤지원 기자 = 레오 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제 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1994년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로 조연상 후보에 오른 지 22년만에 남자배우 최고상을 거머쥔 것이다.

올해 LA 돌비시어터에서 열린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1월 개봉)의 주인공 디카프리오가 남우주연상을 탈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2005년 '에비에이터' 2007년 '블러드 다이아몬드' 2014년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로 3차례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으나 번번이 수상 고배를 마시며 '아카데미와 악연'이란 수식이 늘 그의 곁에 따라붙었기 때문이다.

서부개척극 '레버넌트'에서 디카프리오는

죽음의 문턱에서 경쟁 사냥꾼이 아들을 죽인 장면을 목격한 뒤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냥꾼 휴 글래스 역을 맡았다. 19세기 광활한 눈밭에서 벌어지는 생존투쟁극을 설득력있게 그리기 위해 디카프리오는 실제 들소의 날간을 먹고 죽은 동물 시체의 배를 갈라 그 안에서 잠을 자는 등 몸을 혹사시키며 연기에 임했다고 전해진다.

이날 수상자 이름으로 디카프리오가 호명되자 그는 무대에 올라 "레버넌트를 만든 과정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면서 "기후변화는 현재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생태계가 당면한 위협이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시상에 감사를 전하면서 "이상을 당연한 것처럼 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yjw@news1.kr



'설행', 해외 영화제 극찬 국내 관객도 매료시킬까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김태훈, 박소담 주연의 영화 '설행_눈길을 걷다'가 오늘(3일) 개봉했다. 이미 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인정을 받은 만큼 국내 관객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설행_눈길을 걷다'는 치료를 위해 산 중 요양원을 찾은 알코올 중독자 정우가 신비로운 수녀 마리아를 만나 점차 치유 받게 되는 드라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인 김태훈이 알코올 중독자 정우 역을 맡아 새로운 연기변신을 시도했다. 또한 '검은 사제들'로 충무로의 괴물 신인으로 등극한 박소담이 신비로운 수녀 마리아 역을 맡아 주목 받고 있

다. '설행_눈길을 걷다'는 개봉 전부터 유럽, 미국, 인도, 중국 등 전세계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드라마틱하고 꿈결 같은 영화!", "신비로운 설정 속에서 그려낸 사려 깊은 초상화!" 등 뜨거운 박수와 극찬을 받아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연출을 맡은 김희정 감독은 지난 2007년 영화 '열세살, 수아'로 데뷔해 영화계의 주목을 받았다. '청포도 사탕'에 이어 이번 작품 역시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했다.

uu84@news1.kr



JTBC 측 '차이나는 도울', 3월 6일 첫방송 확정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차이나는 도울'이 편성을 확정짓고 포스터를 공개했다.

3일 공개된 JTBC 새 프로그램 '차이나는 도울' 포스터는 중국을 떠올리게 하는 문화재를 배경으로 도울 김용욱과 그 제자들의 모습을 담았다.

수목화를 배경으로 한 도울의 단독 포스터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재가 속속 숨어 있다. 도울의 손 끝이 닿은 것이 자금성이며, 그 앞에 위치한 청동 거북상은 황제의 장수를 상징한다. 자금성 왼쪽에는 계림호수 일월쌍탑 중 해를 상징하는 동탑이 세워져 있으며, 그 앞쪽으로는 중국 4대 정자 중 하나로 왕시지의 친필을 보유한 정자인 란팅이 있다. 자금성의 오른쪽으로는 만리장성이 펼쳐져 있다.

단체 포스터에는 도울에게 밀착 수업을 받을 영화배우 박철민, 작가 조승연, 가수 호란, 개그우먼 신보라, 배우 박재민, 방송인 알베르토, 박가원, 가수 헤이비가 각각 도울을 중심으로 학구열 넘치는 포즈를 취해 눈길을 끈다.

'차이나는 도울'은 우리 시대의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주기 위한 강연 프로그램으로 도울 김용욱이 직접 보고 탐구한 중국에 대한 통찰을 다룬다. '차이나는 도울'은 대중 강연에서 벗어나 소수정예 밀착 수업을 통해 소통하고 즐기는 '지식버라이어티' 강의로 9인의 셉템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를 신청한 시청자 총 10인과 호흡을 맞춘다. 오는 6일 저녁 8시30분 첫 방송.

reddgreen35@news1.kr

"꿈★은 이뤄진다"...이병헌, 아카데미 인터뷰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배우 이병헌이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 레드카펫에서 진행된 해외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배우로 참석한 것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이병헌은 지난 2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HBO Asia 리포터가 "아시아 쪽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고 묻자 "흑인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인, 히스패닉 등 여러 인종에게 더 많은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배우로서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했다.

또한 미국 주요 방송사 ABC와의 인터뷰에서 이병헌은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가하는 첫 한국인 배우로서 자부심이 있을 텐데 어떤 기분인가"라는 질문에 "배우로서 이 자

리에 오게 돼 정말 기쁘다. 사실 정말 꿈꿔왔던 순간이다. 꿈은 이뤄진다!(Dreams Come True!)"고 센스 넘치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한밤의 TV연예'는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한 이병헌을 밀착 취재했다. 시상식 본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병헌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백스테이지 뒤에서 이병헌과 할리우드 최고의 인기 배우 톰 하디와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이병헌은 이번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 시상자로 나서 유창한 영어 실력을 보여주며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며 쏟은 노력을 증명, 한국 대표 배우로서의 위용을 과시했다.

aluem_chang@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2월 22일 ~ 2016년 2월 28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MBC	주말특별기획(내딸금사월)	33.6%
2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6.1%
3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4.8%
4	KBS1	KBS9시뉴스	17.2%
5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16.2%
6	MBC	일밤(복면가왕, 진짜사나이2)	15.8%
6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15.8%
8	SBS	창사특별기획(육룡이 나르샤)	15.2%
9	KBS2	공사창립특별기획(태양의후예)	14.9%
10	KBS2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14.2%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	KBS2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3	SBS	아침일일연속극(내사위의여자)
4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5	MBC	MBC아침드라마(내일도소리)
6	MBC	일일연속극(최고의연인)
7	SBS	주말드라마(그래, 그런거야)
8	MBC	일일특별기획(아름다운당신)
9	KBS1	대하드라마(장영실)
10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시간을 달려서 (Rough)	여자친구
02	어디에도	엠씨 더 맥스
03	너는 나 나는 너	지코 (ZICO)
04	Rain	태연
05	잊어버리지마 (Feat. 태연)	Crush
06	OOH-AHH하게	TWICE
07	Dream	수지, 백현
08	넌 is 뭔들	마마무
09	오늘부터 우리는 (Me Gustas Tu)	여자친구
10	센치해	WINNER

숫자 퍼즐 (Sudoku)

2	4							7
5			6		9			4
				4				5 1
					7			1 9
	3		2		1			8
9	2		8					
3	7			5				
	5		1		3			4
1							3	8

3월 6일 - 3월 12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병 주고 약주는</p> <p>● 운수: 정신없이 일하다보니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 금전: 문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처리에 있어서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손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애정: 병 주고 약주는 격입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가도 말 한마디에 다시 마음이 동하고 흔들립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8, 11일 길일, 10, 12일 주의.</p>	<p>소띠 전화위복의 상태로</p> <p>● 운수: 호랑이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오더라도 정신을 차리면 도리어 전화위복의 상태로 바뀌집니다. ● 금전: 융통성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너무 실리를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 애정: 마음에 걸리니 고민만 깊어집니다. 깨끗이 정리하지나 아직 미련이 있고 계속해서 가지니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7, 12일 길일, 8, 11일 주의.</p>	<p>범띠 내 편을 들어주는</p> <p>● 운수: 이 세상에 내편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드러내고 보이지 않아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다. ● 금전: 거래에 있어서 유리한 때입니다. 싸게 산 것을 이윤을 남기고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0, 11일 길일, 6, 12일 주의.</p>
<p>토끼띠 단단히 마무리 지어야</p> <p>● 운수: 단단하게 매듭을 지어야 잘 끊어지지 않고 풀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단단히 마무리 지어야 하겠습니다. ● 금전: 급하게 하는 행동은 이익을 손해를 바꿔놓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세요. ● 애정: 다시 흔들리면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한쪽으로 마음이 굳혀졌다가도 또 마음이 바뀝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6, 9일 길일, 7, 10일 주의.</p>	<p>용띠 앞에서 끌어주고</p> <p>● 운수: 우선 주위부터 살펴보세요. 가까운 곳에 있는 답을 두고 영롱한 곳에서 찾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가능성은 있으니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부단한 노력을 지속하면 이익이 따릅니다. ● 애정: 혼자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힘든 길일수록 둘이서 함께 가는 이가 있어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7, 12일 길일, 6, 8일 주의.</p>	<p>뱀띠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p> <p>● 운수: 약간의 무리로도 탈이 나기 쉽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도 자신의 체력에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작은 돈은 들어오지만 큰돈이 나갈 일이 있습니다. 금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기기 쉽습니다. ● 애정: 헤어지는 것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가 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라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8, 11일 길일, 6, 9일 주의.</p>
<p>말띠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p> <p>● 운수: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충분히 의논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적게 가져서 마음이 더 가볍고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 애정: 모든 것은 만남에서 출발합니다. 문제는 그 만남의 결과가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9, 12일 길일, 7, 10일 주의.</p>	<p>양띠 좋은 찬스가 주어지는</p> <p>● 운수: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세요. 준비를 철저히 해둔 사람에게는 재앙도 비껴간다고 합니다. ● 금전: 안정된 운세로 수입이 증가합니다. 금전적으로 좋은 찬스가 주어지는 행운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 애정: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유 불문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6, 10일 길일, 7, 8일 주의.</p>	<p>원숭이띠 사태파악을 제대로</p> <p>● 운수: 어려운 벽에 부딪치게 됩니다.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후회가 물려올 것입니다. ● 금전: 좋은 물건을 보면 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과소비를 할 수 있으니 아예 쇼핑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순간적인 감정으로 마음의 있는 말을 다했다가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7, 11일 길일, 6, 9일 주의.</p>
<p>닭띠 잠시 생각을 접어도도록</p> <p>● 운수: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해결은 되지 않고 더 미궁에 빠집니다. 지금은 잠시 생각을 접어도도록 하세요. ● 금전: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이익이 되고 호박이 널굴째 쪼개져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 애정: 다시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만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우와 예의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8, 12일 길일, 7, 10일 주의.</p>	<p>개띠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p> <p>● 운수: 지금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야만 미래에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거듭해오던 일들이 차츰 해결됩니다. ● 금전: 그동안 부지런하게 일한 것에 대가가 따라올 것입니다. 평소보다 나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애정: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아름답다워 보이고 그 어떤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9, 10일 길일, 8, 11일 주의.</p>	<p>돼지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p> <p>● 운수: 가만히 있기보다는 야외활동이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 금전: 새로운 거래처가 생깁니다.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됨으로써 수입이 늘게 됩니다. ● 애정: 처음에는 그리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관계가 괜찮아질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7, 10일 길일, 9, 12일 주의.</p>

'복면가왕'의 감동, 안방극장으로 옮긴 밀젠코 마티예비치

(서울=뉴스1스타) 박건욱 기자 = '스틸하트 보컬 밀젠코 마티예비치(Miljenko Matijevic)가 안방극장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화려한 유혹'에서는 밀젠코 마티예비치(이하 밀젠코)가 가장한 OST '마이 러브 이즈 곤' (My Love Is Gone)'이 삽입돼 시청자 이목을 사로잡았다.

15인조 리얼 스트링으로 시작된 '마이러브 이즈곤'은 다이내믹한 드럼과 기타사운드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수 없는 마음을 절규하듯 표현했다.

코러스 라인의 웅장한 스케일로 음악이 넓혀진 후 조용히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영원한 사랑과 이별의 아픔이 느껴진다. 이에 안방극장 시청자들은 그의 목소리와 노래에 열광하고 있다.

이같은 반응은 지난 달 28일 방송된 MBC '복면가왕'의 '과묵한 번개맨'의 정체가 밀젠코라는 사실이 밝



혀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복면가왕'에서는 한국 팬들을 위해 '슈즈곤'의 특별 무대를 선보이며 '록 레전드'의 면모를 과시했다. 방송을 통해 밀젠코의 특별한 한국 사랑이 전해지며 스틸하트를 잘 몰랐던 20대 젊은 층은 '슈즈곤'이라는 노래의 감동을, 중장년 계층은 스틸하트의 보컬 밀젠코의 매력을 느낄 수 있

었다는 평이다. OST 제작사 더하기미디어 이성권 대표는 " '화려한 유혹'을 통해 공개된 신곡 '마이러브 이즈곤'은 밀젠코가 직접 가사를 쓸 정도로 애착을 보인 곡"이라며 "안방극장에서 보는 재미와 듣는 재미를 함께 선사해 시청자 호응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kun112@news1.kr



'SNL7' 측 "클로이 모레츠 출연 흔쾌히 수락, 몸 사리지 않아"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클로이 모레츠가 'SNL코리아 시즌7' 이하니편 생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한다.

오는 5일 밤 9시45분 방송되는 tvN 'SNL코리아 시즌7' 이하니 편에 초특급 게스트가 온다. 할리우드의 국민 여동생 클로이 모레츠가 'SNL코리아 시즌7'에 생방송 게스트로 출연하는 것. 미란다 커를 비롯한 다양한 할리우드 배우들이 'SNL코리아'에서 큰 활약을 펼친 만큼, 클로이 모레츠가 이번 주 'SNL코리아 시즌7'에서 선보일 매력에 기대가 모아진다.

특히 클로이 모레츠는 '내 며느리 클로이' 코너에 출연한다. 이번에는

직접 생방송 스튜디오 콘트에 출연할 예정. 한국 막장 드라마로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 며느리 역을 맡아 시선을 강탈할 계획이다. 신동엽, 유세윤과 함께 호흡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김 먹방을 잇는 레전드급 영상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SNL코리아'에 애정을 보이며 생방송 출연 제의를 흔쾌히 수락했다는 클로이 모레츠는 녹화에 출연했던 작년보다 더 생동감 있는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reddgreen35@news1.kr

해피투게더' 유재석, 유라인 엄현경에 "유라인은 없다" 손사래

(서울=뉴스1스타) 백초현 기자 = MC 유재석이 유라인의 실체를 밝혔다.

3일 밤 11시10분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에서는 새롭게 인턴 MC로 합류한 배우 엄현경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엄현경은 "제가 유라인으로서"라면서 "저 유라인 아니에요?"라고 물었다. 이에 유재석은 "그러지마라. 유라인은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유재석은 이어 "엄현경과 대기실에서 봤는데, 엄현경이 '거봐요. 제가 예능과 잘 맞는다고 했잖아요'라더라"라고 폭로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해피투게더'는 '독거남녀' 특집으로 성시경, 손여은, 차타, 이국주가 출연해 입담을 선보였다.

poolchoya@news1.kr



천지보상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Sales Representative Wanted

True World FOODS

Japanese Food Wholesaler needs a full time sales rep to maintain and expand restaurant accounts in the Greater Boston area.

Qualifications:

- Able to speak English
- Able to speak Korean, preferred
- Able to be respectful to customers, co-workers and management
- Competent driver with valid driver's license
- Good office skills including computer literacy
- Able to pass a drug screen
- Able to lift heavy product items from time to time weighing as much as 50 lbs.
- Familiar with the restaurant business and/or wholesale food business

To apply please send your resume to:
True World Foods Boston c/o 스티브 김,
22 Foodmart Road, Boston, MA 02118.
Or email to stevekim@trueworldfoods.com
Tel: 617-596-1377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HB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백사후세초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요 아저씨' 정지훈, 코믹부터 애잔까지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배우 정지훈이 제대로 물을 만났다.

정지훈은 최근 방영 중인 SBS 수목드라마 '돌아와요 아저씨'를 통해 능청스런 코믹 캐릭터를 선보이고 있다. 자기 웃을 입을 듯한 능수능란한 연기력과 변화무쌍한 매력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다.

정지훈이 연기하는 이해준은 과로사로 죽은 40대 백화점 판매과장 김영수(김인권 분)

에서 30대 엘리트 꽃미남이자 백화점 점장으로 환생한 인물이다. 정지훈은 40대 아저씨 김영수가 빙의된 이해준이라는 인물을 맡아 코믹과 애잔함을 오가며 다채로운 매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3회 방송에서는 코믹에서부터 진지함을 오가는 섬세한 연기가 빛을 발했다. 해준은 생전 자신이 살던 본가에 찾아가 자신을 다혜(이민정)를 쫓아온 변태로 오해하는

가족들에게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이도 잠시 자신의 영정사진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후 쏟아낸 절절한 오열 연기로 보는 이들을 몽클하게 만들었다. 환생을 했지만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서 그간 참아왔던 복잡한 심정을 터트리게 된 장면으로, 정지훈은 애절한 눈물 연기로 해준의 심정을 전달했다.

ppbn@news1.kr

티보플레이 2월 4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우리집 꿀단지 |
| 2 | KBS | TV소설(별이되어빛나리) |
| 3 | SBS | 내 사위의 여자 |
| 4 | KBS | 아이가 다섯 |
| 5 | MBC | 내일도 승리 |
| 6 | MBC | 최고의 연인 |
| 7 | SBS | 그래, 그런거야 |
| 8 | MBC | 아름다운당신 |
| 9 | KBS | 장영실 |
| 10 | MBC | 천상의 약속 |

티보플레이 2월 4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MBC | 가화만사성 |
| 2 | SBS | 돌아와요 아저씨 |
| 3 | KBS | 태양의 후예 |
| 4 | CJ E&M | SNL 코리아 시즌7 |

티보플레이 2월 4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나쁜놈은 죽는다 | 진백림, 손예진 |
|---|----------|----------|

'나쁜놈은 죽는다' 손예진, 살벌하게 돌아왔다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청순의 대명사' '옛던 손예진이 '살벌한 여인'으로 색다른 변신을 시도한다.

손예진의 새 영화 '나쁜놈은 죽는다'는 제주도 여행을 하던 친구들이 미스터리한 여인 지연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코믹액션극이다.

'나쁜놈은 죽는다'에서 미스터리 하면서 살벌한 지연 역을 맡은 손예진은 2014년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이후 1년여 만에 영화로 복귀하여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uu84@news1.kr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무제한 시청 월:

\$39.99



본문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2016 The Best OnDemand, LLC. 본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됩니다. 본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됩니다.

The Best OnDemand, TBO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seon@bostonpremierrealty.com

리스팅

1. Full Plant 플리너 : 핵심권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9k**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 공백** 3.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4.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5.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6. 드롭오프 스토어 : 알링턴 메인스트리트에 위치. 년 배상 5만~7만. Asking **\$20,000**
7. 세탁소 : 보스턴 북부인근. Asking **\$150,000**
8. 보스턴 인근 일식식당 : 좋은 위치. Beer and wine 라이선스 포함. Asking **\$225,000**
9. Single family in Danvers : 4Bed 2 and 1/2 Bath, 2,620 s.f. 2 car garage. 좋은 위치. Asking **\$550,000**
10.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4 Bed 2 Bath, 1,800 s.f. 큰 공간, 2대 주차공간, 좋은 위치, 최상의 학교. Rt 9 인접, 근처 Chestnut Hill 쇼핑몰과 불과 몇분거리에 위치함. **\$3,400**
11. 렌트 : 1776 Commonwealth ave. #2, Brighton. 4 Bed 2 Bath 2,379sf 허빙, Hot Water 1대 주차공간 포함. **\$3,950**
12. 렌트 : 1731 Beacon st Unit 113 Brookline 2bed 1 bath 1 garage parking, heating, hot water included. **\$2,9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36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내게 있어 안부는...

전화를 자주 하는 성격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에게 무심함마저 안길 때가 있다. 잘 있겠거니, 바쁘려니 하다 보면 어느샌가 훌쩍 반년이 흘러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물어오는 안부에는 어찌 그리도 반가운지 이 이기적인 마음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의 출발이었던가. 여하튼 가까이에서 어릴 적 친구가 하나 살고 있다. 친구는 남편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찌나 바쁘지 만나기도 어렵다. 하지만 우리 둘은 늘 서로 그 자리에서 있음을 알기에 보채거나 안달하지 않는다. 설령, 한 달이 지나고 서너 달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는 일이 바쁜 게지 하고 그렇게 기다린다.

그래서일까. 나이 들어 사귀는 친구는 때론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친구는 가끔 연락이 끊이지 않을 만큼에서 챙겨줘야 하고 안부를 물어야 하니 나 같은 성격의 소유자에게는 자유롭지 않아 불편하다. 그래서 만나면 웃음으로 화답하는 친구는 많아도 정작 친절하게 지내는 친구는 그리 많지 않다. 나이가 하나들 늘면서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이 편안해 좋다. 그래서 혼자서 보내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 아마도 혼자 있을 때의 자

유로움이란 경험해본 이들은 알 일이다. 둘이 있어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가려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면 더욱이 그렇다.

혼자 드라이브하며 다니길 좋아하는 편이라 혹여 누군가 급하게 라이드를 부탁한다면 내 시간이 허락되는 한 언제나 오케이다. 하지만 무엇인가 정해진 곳을 계속 가야 하는데 카풀을 하자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노우를 선택하는 편이다. 혼자라면 드라이브하는 혼자만의 시간은 하나의 명상과 같은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계절마다 느끼는 차창 밖의 자연은 나를 나로 바라보게 한다. 자연과 더불어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고 자연 속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를 만나며 그 속에서 작디작은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때론 내게 안부는 그리움이기도 하다. 지나온 시간의 여정 속 안부가 그리울 때가 있다. 그렇게 그 그리움의 숲에 들어 한참을 오랜 추억과 기억 사이에서 오가다 보면 저절로 안부에 마침표를 찍는다. 또다시 잘 있으려니, 좋은 일들로 바쁘려니 그렇게 마음을 다독거리며 안부를 접는 것이다. 그것이 어찌

면 우리가 오늘을 사는 디딤돌이 되며, 힘과 에너지가 되는가 싶다. 그래서 기다림을 배우게 되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나의 성숙을 발견하며 오늘을 깨끗하게 사는가 싶다. 오랜 그리움의 안부를 달래며 오늘도 또 하나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그리움을 쌓는가 싶다.

그리움은 내게 하늘이 주신 천형(天刑)같은 것이다. 그 그리움을 통해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새 생명의 신비를 맛보는 그런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창작을 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미칠 가슴이 계절마다 한 차례씩 찾아와 온몸을 뒤틀리게 하고 배 속의 창자를 휘저어 놓고 갈 것이다. 그런 고통이 없다면 어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있겠으며 아픔과 상처를 느낄 수 있을까. 그리움은 그래서 내게 영혼의 기도이기도 하다.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의 나를 내어놓는 시간이며 발가벗은 내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묵상(명상)의 시간이다.

안부가 그리운 날에는 내게 기도가 필요한 날이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임을 알기에 혼자 있어도 함께하는 것을 안 까닭이다. 자

연을 통해서 기다림을 배우고 더불어 사는 이치를 배운다. 자연에게서 역행하지 않고 기다리는 순리를 배우는 까닭이다. 순리란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역행은 곧 욕심(탐욕)을 말하는 것이며 결국 자신에게 해(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이다. 순리란 자연스러움이다. 살다 보면 삶속에서 만나는 정들이 있다. 고운 정 미운 정 떨쳐버리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는,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정들 속 안부가 있다.

내게 있어 안부는 그리움이며 그 그리움은 기도이기도 하다. 그 누군가의 안부가 그리울 때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기도가 시작된다. 당장 귀에 듣는 목소리가 아닌, 그 사람을 깊이 떠올리며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안부가 궁급해 안달하거나 보채거나 하지 않는 기다림을 깨달았는지도 모른다. 대상이 굳이 사람일 필요는 없다. 그 어떤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기다림을 배운 까닭에 그 어떤 일에 있어 걱정과 염려보다는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지금에 머문 평안함이 참 좋다. 그것이 그리움일지라도.



한담객설閑談客說: 동전의 가치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봄이다. 당연히 해는 길어졌다. 한국에선 새학기가 시작 되었을 것이다. 봄은 어린 것들을 키운다. 보스톤에선 봄이 오려면 아직은 얼마간 기다려야 할 게다. 소월의 가는 봄 3월이다. 그 많던 제비는 다 어디로 갔나. 제비는 흥부에게 금은보화를 얻는 박씨를 물어다 줬다.

가는 봄 삼월, 삼월은 삼진
강남 제비도 안 잊고 왔는데
아무렵은요
설계 이때는 못잊게, 그리워
(김소월, 가는봄 3월)

10원짜리 한국 동전을 발견했다. 가방 구석에 박혀 있었다. 500원과 100원짜리 백동전도 섞여 있었다. 한국 방문 중에 따라 온 모양이다. 혹시

기억하시는가. 한국 10원짜리 뒷면엔 무슨 그림이 있는가? 다보탑이다. 그건 내가 기억한다. 아직 고등학생일 적에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다. 불국사 입구로 올라서며, 한 손에 10원짜리 동전을 손에 쥐고 있었다. 가슴은 뛰었는데, 다보탑을 쳐다보고 동전을 내려다 봤다. 새겨진 탑의 모습이 다른지 같은지 확인하고자 했던 건 아니다. 그저 그러고 싶었다. 10원짜리 구리동전을 만드는데 40원이라. 가치는 10원인데, 글썽 이런 건 무엇이라 해야 하나. 가치 떨어진 동전이 천덕꾸러기 된 것인가. 떨어진 10원짜리 동전은 누구도 줘주지 않을 게다. 마치 떨어진 1센트 미국동전을 누구도 제대로 쳐다 보지 않듯 말이다.

지폐나 동전을 사용하는 일이 적어졌다. 모두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으로 처리한다. 나부터

도 커피를 사 마실 때나 동전 몇 잎과 맞바꿀까. 아니 길거리 파킹 미터에 쿠퍼를 넣는 일은 있다. 그땐 쿠퍼도 귀하다. 대여섯 개는 넣어야 할 게다. 그런데, 배부르던 붉은색 돼지 저금통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던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였다. 은행구좌를 열었다. 체크북도 발급받았다. 내 이름과 아내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새겨진 이름은 생소했다. 체크를 끊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을 내가 실연했던 거다. 연습한 싸인을 멋들여 가며 갈겨댔다. 마치 백만장자나 된 기분이었다 할까. 아직 미국에서도 크레딧카드가 귀할 적이었다. 더욱 한국에선 체크북도 크레딧카드도 흔하지 않을 때였다. 학교 등록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가다가, 버스에서 소매치기 당했다는 것도 신문에 날 때였던 거다. 내 선친께서 누런색 월급

봉투를 어머니께 건네 주시던 광경도 떠오른다.

기름값이 무지 떨어졌다. 갤런당 1.5달러까지 내려갔다. 4달러까지 갔을 때 비하면 물경 세 배 가까이 내린 거다. 그 동안 누가 폭리를 취했다는 건가? 누가 그 많은 차익을 먹어 치웠나? 그 많던 싱아를 누가 다 먹었을까? 돌아간 박완서 작가의 소설 제목이다. 그 많은 기름값 이익은 누가 다 먹어 치웠나?

이젠 제비가 캐쉬카드를 물고 오려나. 카드는 동전보다 훨씬 가볍다. 제비도 어렵지 않게 물고 날 수 있을 게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마태 25:20)



구악

FROM KOREA: GUGAK
*Soundscapes
 of the Soul*

정혜연의 소리

WORLD MUSIC CONCERTS

3월 19일 (토) 오후 8시 | 콘서트 해설: 오후 7시
 3월 20일 (토) 오후 4시

Slosberg Music Center, Brandeis University
 415 South Street, Waltham, MA 02453

일반 \$20, 시니어 \$15, 학생 \$5
 문의: 781-223-4411 kcsboston.org

한인 현대 미술전: 2월 19일 - 3월 26일

Concert and residency events are supported in part by the Massachusetts Cultural Council, Waltham Cultural Council, Brandeis University's East Asian Studies program and the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Presented in association with the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MusicUnitesUS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Brandeis University

Sponsored by 주 보스톤 총영사관,
 보스톤 한인회, East Boston Savings Bank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1. 리틀 빅혼 강 전투와 카스터 (5)

파하 사파 결국 백인의 수중으로 (계속)
그러나 대표단은 주거지역을 떠나 있는 적대적인 인디언들은 이 건과 아무 상관도 없으며 주거지역내의 인디언들만 해당된다는 희한한 논리를 들고 나왔다. 한술 더 떠 새 조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당장 식량공급을 중단하고 총과 말을 압수하고 저 남쪽의 오클라호마에 있는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의 수위를 더 높였다. 도무지 백인들의 압박에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레드 클라우드와 스팟티드 테일(Spotted Tail) 추장이 서명하고 나머지 오클라라 지파와 브롤레 지파의 인디언들도 뒤이어 서명했다. 대표단은 다른 인디언 부족들이 머물고 있는 에이전시도 방문하여 갖은 협박으로 서명을 얻어냈다. 드디어 1877년 2월 28일 1868년에 체결된 라라미 조약을 수정하는 협정이 만들어짐으로써 적법성 여부에 관한 불씨를 안은 채 일단은 블랙힐즈



(라코타의 영토가 줄어드는 과정)

가 백인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시팅불과 크레이지 호스 도피 계속
미군들은 양도받은 지역을 순찰하며 만나게 되는 인디언들은 무조건 죽였다. 시팅불이 이끄는 인디언들은 가능한 한 미군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멀리 옐로스톤 강으로 이동하였다. 1877년 봄 도망 다니기에 지친 시팅불은 더 이상 미국 땅에서 버티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족민들을 이끌고 캐나다로 넘어갔다. 크레이지 호스와 함께 가기를 원하였으나 크레이지 호스 역시 미군을 피해 여기저기로 도망 다니는 중이라서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크록 장군의 부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미친 말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었다. 행군 도중에 우연히 무딘 칼(Dull Knife)이 이끄는 사이엔마을을 발견했다. 그들은 새벽녘에 인디언들이 채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포니(Pawnee)족 용병을 앞세워 기습 공격하여 수많은 인디언들을 사살했다. 살아남은 사람은 맨발로 옷가지도 걸치지 못하고 황급히 천막에서 빠져나와 도망쳤다. 그들이 피신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미친 말이 머물고 있는 곳 밖에 없었다. 미군들이 인디언의 말은 다 사살하고 의복이나 신발은 다 불태워버려 엄동설한에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이동 첫날밤에 노인 여섯 명과 어린이 열두 명이 얼어 죽었다. 디 브라운의 명저 'Bury My Heart at Wounded Knee' 의 357

페이지에는 “다음날 밤에는 어린이들을 추위로 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말을 죽여서 내장을 꺼낸 다음 그 속으로 어린이들을 재웠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눈물겨운 실화를 들을 때에 자식과 손자들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크레이지 호스의 최후

크록은 크레이지 호스를 잡으려고 점무늬 꼬리에게 접근했다. 크레이지 호스를 투항시키기만 하면 수우족을 미주리 강 쪽으로 이주시키지 않겠다고 꼬드겼다. 점무늬 꼬리가 미친 말의 마을을 찾았으나 미친 말은 일부로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크록은 붉은 구름을 크레이지 호스에게 보내 다시 한 번 투항하도록 설득시켰다. 레드 클라우드는 크레이지 호스가 투항하게 되면 파우더 강가에 인디언 주거지역을 마련해 주겠다는 크록의 달콤한 약속도 가져왔다. 이제 탄약도 식량도 바닥나서 백인들과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어진 크레이지 호스는 그 약속을 믿고 1877년 5월 7일 레드 클라우드가 머물고 있는 로빈슨 요새(Fort Robinson)로 들어갔다. 날개 꺾인 독수리가 된 레드 클라우드는 여전히 젊은 인디언들의 우상으로 요새 내에서 인기가 대단하여 나이 많은 추장들로부터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고 한다. 크레이지 호스는 크록(George R. Crook)이 약속을 지켜 파우더 강가에 주거지역을 설치해줄 날만을 기다리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

다. 크록은 크레이지 호스에게 워싱턴을 방문하여 대통령을 만나 새 주거지역에 관하여 회담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늙은 추장들이 대통령을 만나고 온 후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익히 보아온 터라 크레이지 호스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약속대로 파우더강가에 주거지역을 만들면 그만이지 여기에 무슨 별도의 회담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백인들의 속셈을 크레이지 호스가 모를 리 없었다.



(로빈슨 요새(Fort Robinson)로 투항하려 가는 레드 클라우드 무리들, 1877년 5월 6일)

1877년 6월에 로키 산맥 너머 몬태나에서 네즈 페르세(Nez Perce) 인디언과 미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자 인디언 주재관이 이 전쟁에 참가할 용병을 모집하였다. 몇몇 젊은 인디언들이 용병으로 지원하는 것을 본 크레이지 호스는 이를 매우 부끄러운 일로 여겨 부족민을 이끌고 다시 파우더 강 쪽으로 나가버리겠다는 말을 내뱉었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20 화랑세기花郎世紀, 1세 풍월주風月主 위화랑魏花郎(8)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위화랑은 자식을 매우 많이 두었다. 부인들도 역시 많았다. 본 부인은 준실부인인데 매우 아름답고 똑똑했다. 준실은 자비왕(신라 제20대 왕)의 외손녀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준명부인이 자비왕의 딸이며 이흔과 결혼하여 준실을 낳았다. 준실부인은 처음에는 범흥왕의 후궁이었으나 위화랑에게로 시집갔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화랑이다. 이화랑은 후에 4세 풍월주가 되었다. 이 이화랑이 '화랑세기'의 저자 김대문의 고조할아버지이다. 김대문의 고조할머니는 숙명궁주인데 그는 진흥왕의 후비였다. 진흥왕과 아들 정숙태자까지 낳은 후에 도망나가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화랑과 결혼하여 아들 원광과 김대문의 증조할아버지 보리를 낳았다. 화랑도의 윤리지침과 실천이념으로 알려진 '세속오계世俗五戒'를 지었다고 전해지는 신라의 고승 원광법사의 성은 박차씨 또는 설薛라고도 전해진다(삼국유사). 삼국사기 '귀산열전' 등을 참고해보면, 그는 13세에 출가하여 589년(진평왕11년)에 진廉나라로 갔다. 그리고 오나라를 거쳐 수나라의 흥선사로 갔다(이 무렵 남북조로 갈라져

있던 중국이 수나라에 의해 통일되었다). 당시 그는 이미 중국에서 섭종론의 대가로 명성을 떨치는 대법사가 되어 있었다. 그의 설법은 많은 신자들을 깨우치게 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신라 조정에서 그의 귀국을 자주 요청하였다. 수나라에서 600년에 귀국한 그는 왕과 온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대승경전 강론 등 여러 설법을 하였다. 그는 대승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설법하였고, 저서로 '여래장경사기如來藏經私記' 3권과 '여래장경소'가 있다는 기록이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여래장如來藏 사상가로 평가되고 있다. 그 후 가실사加悉寺에서 수양할 때 귀산貴山과 추향이 찾아와서 “우리는 속세의 사람이니 사군자와 교유하는 데 필요한 심신수양의 계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원광이 “불계에는 보살계가 있어서 이를 심계로 삼고 있으나... 중략... 지금 세속오계가 있으니...” 하면서 귀산과 추향에게 일러준 것이 세속오계이다. 여기서 원광은 자신이 지었다고 하지 않고 “세속오계가 있으니...” 라고 했는데, 이는 지난날 자신이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당시 신라사회에 있었던 계율을 화랑도 등이 따르던 것으로 보고있다. 당시 원광이나 귀산, 추향은 화랑이 아니었다. 원광이 그들에

게 준 오계와 비슷한 내용이 단군조선의 '소도오상' 에도 있기에, 즉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우리의 경전인 천부경, 삼일신고, 첨천계경 등에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참고하여 만들어진 계율로 보고 있다. 화랑들이 윤리지침과 실천이념으로 삼아 수련했던 '세속오계'는, 사군이충事君以忠(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기어야 한다), 사친이효事親以孝(효로써 부모를 섬기어야 한다), 교우이신交友以信(믿음으로써 벗을 사귀어야 한다), 임전무퇴臨戰無退(싸움에 나가서는 물러남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살생유택殺生有擇(살아 있는 것을 죽일 때에는 가림이 있어야 한다)이다. 원광이 이 세속오계를 귀산과 추향에게 주었을 때 그들은 마지막의 살생유택에 대하여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질문하였다. 이에 원광은 “동물을 잡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잡으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별로 잡을 동물도 없고, 잡을 시기도 거의 없다. 먼저 육재일六齋日(169)과 봄, 여름철에는 살생하지 말것과 말, 소, 닭, 개를 죽이지 말것 그리고 작은 동물은 죽이지 말것이며 꼭 필요한 만큼만 잡으라 많이 죽이지 말라고 했다.

169) 육재일이란 불교에서 신자들에게 경건하게 보낼 것을 권하는 여섯 재일齋日이다. 그리고 재일은 부처나 승단에 공양을 올려 공덕을 쌓는 의식을 갖는 날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사부대중의 경우 한달에 6일(매달 음력 8, 14, 15, 23, 29, 30)동안 의식장소에 모여 목욕재계를 하고 단식을 하며 경건하게 보낸다. 재가신도들도 같은 날 팔관재계八關齋戒를 지킨다. 팔관재계는 살생하지 않고, 탐욕을 없애며, 음탕한 마음을 없애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고, 좋은 침상을 쓰지 않고, 가무하거나 향수를 쓰지 않고, 정오가 지나면 금식을 하는 8가지를 말한다. 고려시대까지 있었던 이 관습은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불교가 쇠퇴하여 감에 따라 사라진 의식으로 되었다. 현재는 보통 초하루나 그믐, 그리고 보름 이렇게 매달 이를 재를 지낸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交 (교)

“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主)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I (the God) will be a Father to you, and you will be My sons and daughters, says the Lord Almighty.” - 고린도후서 6:18.



2일 미국(뉴욕 시간)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지목하며 추가 도발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가 북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발언권을 얻어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북한 주민을 힘들게 하는 도발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지하는데 실패한다면 지역간 군비경쟁에 들어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 오준 대사는 “유엔제재의 확실한 이행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길박에는 선택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명백히 말했다.

연설 막바지엔 깜짝 한국어를 쓰며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북한 통치자(김정은)에게 부탁한다. 이제 그만 하라”고

오 대사는 “왜 당신들은 이런 무기들이 필요한가 한국엔 핵무기가 없다”고 밝힌 다음 “위협은 없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상상력이 만든 것일 뿐”이라며 “당신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당신의 주민들만 고통을 받을 뿐”이라며 “그들도 나와 우리와 같은 동족이다. 제발 깨어나라”고 말했다.

한국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선 “중국이 협상에서 많이 양보해 미국의 입장이 많이 많이 반영됐다”고

오준 대사는 중국의 양보에 대해 “판단은 쉽지 않으나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입장이 크게 바뀌었다”고

오준 대사는 이번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매우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특별 대표는 한국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은 갑자기 4차 핵(核)실험을 한데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말라는 중국의 권고도 무시했다”며 “중국은 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 외 다른 선택이 없었다.

이어 우다웨이 대표는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엄중한 제재만이 북한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중국과 사전협의 없이 지난 1월 초 핵실험을 강행했고 2월 초에는 우다웨이 대표가 평양에 도착한 날 미사일 발사계획을 발표했었다.

북한이 한 달에 두 번이나 중국의 뒤통수를 친 것과 관련 “북한이 중국 얼굴에 먹칠한 것”이라며 우다웨이 대표는 “유엔 안보리 제재는 핵개발을 통해선 얻을 게 없다는 것을 북한에 제대로 경고해 주는 것” 이란다.

그는 “내가 지난 2월 초에 방북했을 때 북한은 이미 미사일 발사를 결심한 상태에서 북한 당국자에게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가는 길은 막다른 골목길’ 이라 충고했지만 북한 당국자는 이 경고를 흘려버렸다”고 “이제 북한에는 어떤 출구도 없으며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 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다웨이 대표는 “이번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로 북한은 상당한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안보리 회원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한 관계 활동에 대해서도 반드시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아직 세부적인 대북한 제재조치를 내놓지 않았지만 현재 북·중국 경에서 대북송금과 화물통관 등이 제한을 받

는 가운데 중국이 ‘단독제재’ 를 시행할 수도 있다” 는 암시도 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제재결의안은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결의안에는 과거 네차례 관련 대북한 결의안과 다른 실효성제재가 다수 포함돼 있다.

리만건 북한노동당 군수공업부장등 북한 장관급을 포함한 핵미사일 개발관련 개인 16명, 12개 단체 신규제재대상지정 관련 해외자산이 모두 동결되고 관련인사는 추방되게 됐다.

북한 주력 수출품목인 금, 석탄,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의 수출금지 또는 제한되는 등 ‘특정분야 제재 (Sectoral Sanction)’ 가 처음 도입됐다.

대(對)북한 항공기, 선박 대여금지, 의심선박 입항금지, 북한은행의 해외지점, 사무소등 90일내 폐쇄 조치 등이 취해진 것.

한국정부는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김정은 정치자금에 정조준하고 있다”며 “그 어느때 보다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안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한국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유엔(UN)회원국들과 적극협력 할 것” 이라고

교(交): 相合也상합야 - 서로 사귀 교

이 交자는 ①宥: 義闕 - ‘뜻 없는 토두’로 번역돼 있으나 “해석상 잘못이 있다”. 정확한 설명은 “義: 의로운, 大闕대궐” 해석하면 “정의(定義)로운 궁궐(宮闕)”. 해석하면 정의로운 왕(王), 즉 임금인 사(王) 대궐이라는 뜻.

②父부: 生己者생기자. 아버지 또는 아버지부 또는 美稱男子 미칭남자 보. 즉, ‘아버

지부’ 와 ‘미남 남자 보’. 두가지로 받음 된다.

①② 두 뜻을 합치면 “큰 궁궐에 사시는 아버지: ①의 큰 궁궐 또는 대궐을 ‘하늘 궁궐’ 을 뜻하고 ②의 아버지는 ” 언제나 나를 생(生)겨 나게하시는 아버지. 즉 남자는 “나를 낳아 주신 육체의 아버지”. 해서 交는 쉽게 하늘 궁궐에 계셔서 모든 인간·남녀노소(男女老少)를 총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神父:신부)와의 “사교(私交)” 를 뜻한다.

私交는 글자 그대로 내(私:己稱사= ‘나’) 사(私)가 ‘하나님 아버지(父)’ 와 “사귀는 것” 을 뜻한다. “나” 를 뜻하는 “私” 는 ①禾: 稼之總名 가지총명-생(生)곡식과 풀어보면 禾자는 丿(左引之좌인지: 빼칠별 =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다는 -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生氣)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生靈)이 된지라”: 창세기 2:7.

다음은 木(나무목)지는 ‘인자 예수님’ 을 뜻하는 사람인(人)자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랑” 을 상징하는 十(십자가)에 물려앉아 나무를 그린 것.

해서 인간의 양식을 상징하는 “벼화(禾)” 자에 “육체의 호흡과 영양” 이 가득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일성, 현 김정은의 할아버지이자 국부(國父)였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交)를 버리고 공산당을 잡았으니...

UN(국제연합)의 힘을 모아 김정은의 북한 정권을 “交: 하늘 아버지는커녕 돼지해(亥: 豚也돼지해)로 몰아가고 있으니...” 交를 버리고 亥를 잡은 김일성의 손자를 회개시키는 성령(聖靈)님의 은총을 남한 전체가 합심기도를 할 수 밖에...!



EMF(Electro Magnetic Field Certificate) 인증
34년 기술력

Made in Korea

꾸근히 잘자리에서 날게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바쁜 하루도 거뜬합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고들 말합니다.
이런것은 온수매트와 함께 포근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랫목 溫水 매트

달게 주무셨습니까?

검색하세요! www.heraldemart.com



(100cm x 200cm)
\$375



(145cm x 200cm)
\$435

01 공중기압 원동으로 전자파 걱정 특!

02 보타가 없으니 소음 걱정 특!

03 7중 안전 제어 시스템으로 안전 걱정 특!

04 스마트 가전 방식으로 전기세 걱정 특!

확실한 무소음 보증

- 자기도 일단 사용으로 고급스런 디자인과

-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으로 안전 사고 방지

Free delivery 무료배송 (하와이, 알라스카는 \$90추가)

경제 전문지가 운영하는 믿음 주는 홈쇼핑

헤럴드 이마트 **Herald eMart**

주문 전화 **213.487.0125**
3325 Wilshire Blvd. #628 LA, CA 90010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21) 어뉴어티의 비밀

미국에 이민을 온 후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새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건강도 옛날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조금 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동안 자식들 열심히 뒷바라지하느라 남아있는 돈이 많지 않지만, 노후 생활 2, 30년을 위해서 어디엔가 투자하고 싶은데 너무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 금융상품은 주식시장이 폭락해도 당신의 투자 원금을 보장합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여러분의 투자 돈도 증가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몇 퍼센트 수익을 보장합니다.” 어뉴어티를 파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하면 죽을 때까지 수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매우 유혹적인 말입니다. 여기에다 원금도 보장된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투자로서 어뉴어티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객관적인 의견을 보기 위해 최근 월 스트리트에 나온 기사(New Rule's Nest Target: Annuities, 2-9-2016, WSJ)를 인용해 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목돈 \$500,000을 투자할 때 파는 사람이 수수료(Commission)로 8%를 부과한다면 이러한 상품에 투자하겠습니까? \$500,000의 8%는 \$40,000입니다. 월 스트리트에 의하면 어뉴어티의 평균 수수료가 8%라고 말합니다. 어뉴어티가 매우 비싼 금융상품이라고 언급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장에 가서 작은 물건 하나를 사도 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구매합니다. 그런데 일부 투자자는 나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며 발생하는 수수료와 경비 등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 결정합니다. 사실 이것은 투자자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어뉴어티를 파는 사람이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뉴어티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면 일부 보험인은 자기는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받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왜 이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까? 투자자가 투자했기에 보험회사가 수수료를 지급한 것입니다.

투자자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보

장하고 죽을 때까지 연금처럼 수입(Income)을 지급하기에 당연히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수료는 여러 보험회사가 자기네 금융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보험인에게 수수료를 주는 것이지 금융상품 자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어느 10년 동안 원금보다 적어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이점을 잘 알고 있기에 투자자를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일찍 파기하면 페널티(Surrender charge)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장한다는 수입도 투자자의 원금과 장기간 투자로 붙어낸 총액에서 실제 내가 돌려받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수수료와 모든 경비를 제하고 수익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라이더(Rider) 경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약 3%를 매년 부과한다고 신문에서 말합니다.

신문 기사의 첫 내용 시작이 문제(Con-

troversial)가 많은 어뉴어티로 시작합니다. 어뉴어티를 파는 사람들이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후두서리(Fiduciary duty)의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 대부분은 재정 설계사로 불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객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일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을 위한 투자 추천은 적당(Suitability)한 의무만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어뉴어티에 투자한 고객의 돈을 뮤추얼 펀드(sub-account)에 투자합니다. 일반 투자자가 뮤추얼 펀드에 직접 투자하면 수수료 8%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부과되는 3%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하락하는 주식시장에서 원금을 보장한다는 어뉴어티 선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듣기 좋은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Too good to be true)” 라는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에게 정말 좋은 투자라면 파는 사람이 수수료와 경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리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P US History 준비, 키워드를 분석하면 길이 보인다 (1)

2015년 개정된 AP US History 시험에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총 50문제가 출제되는 멀티플 초이스 섹션이 단순 암기보다 역사적 맥락 이해와 통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형태로 변했다는 점이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문제 풀이 연습을 할 때도, 주어진 문제의 정답만 신경쓰기보다는 문제의 유관 맥락과 개념 등을 동원해서 입체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Questions 1 – 3 refer to the excerpts below.

“Wherefore, security being the true design and end of government, it unanswerably follows that whatever form thereof appears most likely to ensure it to us, with the least expense and greatest benefit, is preferable to all others Here too is the design and end of government, Freedom and Security.”

- Thomas Paine, Common Sense, 1776

“[G]overnments are instituted among Men, deriving their just powers from the consent of the governed. That whenever any Form of Government becomes destructive of these ends, it is the Right of the People to alter or to abolish it, and to institute new Government, laying its foundation on such principles and organizing its powers in

such form, as to them shall seem most likely to effect their Safety and Happiness.”

- Thomas Jefferso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

1. The excerpts were written in response to the

- (A) British government's attempt to assert greater control over the North American colonies
- (B) British government's failure to protect colonists from attacks by American Indians
- (C) colonial governments' failures to implement mercantilist policies
- (D) colonial governments' attempts to extend political rights to new groups

2. The ideas about government expressed by Paine and Jefferson are most consistent with which of the following?

- (A) The concept of hereditary rights and privileges
- (B) The belief in Manifest Destiny
- (C) The principle of religious freedom
- (D) The ideas of the Enlightenment

3. The principles expressed by Paine and Jefferson best account for which of the following features of the United States during

and immediately after the American Revolution?

- (A) The development of factions and nascent political parties
- (B) The rapid expansion of frontier settlements
- (C) The relatively limited powers of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 (D) The growth of conflict between wealthy elites and poor farmers and laborers

제시문들은 독립혁명이 진행 중이던 1776년에 쓰여졌다. 토머스 페인의 상식(Common Sense)에서 발췌된 제시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부는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the design and end of government, Freedom and Security)” 는 점이다. 토머스 제퍼슨이 초안을 작성한 독립선언문(Declaration of Independence) 역시 정부의 권력은 피통치자로부터 위임 받은,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consent)으로부터 유래한 것이기에, 그 근본적인 계약을 파기한 (영국) 정부를 부정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두 문헌은 공통적으로 계몽주의 사상가인 로크의 사회 계약설을 철학적 배경으로 미국 식민지의 독립 혁명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으로 문제 1과 2의 답은 (A)와 (D)로 쉽게 찾

을 수 있다.

약간의 분석이 더 필요한 질문은 3번이다. 독립혁명의 또다른 철학적 배경인 휘그 이데올로기는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될 경우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군주에게 집중된 권력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독립 선언 직후 만들어진 연합의 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은 의도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각 주가 더 큰 권한을 가지는 형태의 연합 정부를 구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답은 (C).

문제를 풀면서 독립혁명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정리해두는 것이 다른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여기에 등장하는 Thomas Paine, Common Sense, Thomas Jefferso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Design and end of Government, Consent, Articles of Confederation은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해야 할 주요 키워드들이다. 또한 제시 문제의 정답과는 관련이 없지만 영국의 식민지 경제 철학인 중상주의 (mercantilism)와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 등도 AP 시험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이므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일러두기: 소피아 선생님의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칼럼은 3월, 4월 두 달간 AP US History 문제 분석 특강으로 9회 연재됩니다. AP US History 시험 준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와이즈프렘 (617-600-47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OSTON NEHEMIAH INSTITUTE

BNI 평신도신학원은 지역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성 있는 신학강사진들을 통해 지역의 한인 평신도들에게 성서신학을 포함한 체계적인 기본 신학과정을 제공합니다.

선교의 밤: 북한의 실상과 선교의 가능성



주강사 강연제목
북한의 대외전략과
한미 대응방향



2016년 3월12일(토) 오후 6:45
보스톤 한인 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부강사 강연제목
방북 이야기
'내 안의 통일'



□ 주강사: 이성운 박사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 하버드대 한국학 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보든대, 한국 서강대, 서울대, 통일부 초빙교수, 미국 상. 하원 외교위 의원 및 미국 대통령 자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상 수상)



□ 부강사: 장위현 목사
벨mont 워터타운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2016년 봄학기 교과과정

요일 및 시간	학사일정	장소	과목명	교수
월요일 7:30-10pm	4/4-5/2(5주)	Central	호세아와 아모스가 말하는 신앙생활	김영호
	5/9-6/13(5주)	Central	과학과 신앙: 적인가? 아군인가?	장성철
화요일 7:30-10pm	4/12-5/10(5주)	North	이민신학 알아보기	이영길/유경렬
	5/17-6/14(5주)	North	한 눈에 보는 마태복음	김이근

Central클래스 : 보스톤한인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North클래스 : 나사렛사람의교회 900 Main St. Reading, MA 01867



성기주 변호사 칼럼

2016년 H-1B, Part 2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올해 H-1B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예상이기는 하지만 올해도 지난 2년동안 일어났던 신청 첫주 비자 소진 사태가 확실히 됩니다. 1년 전 추첨에 탈락한 재 신청자들에 2년 전 추첨에 탈락하신 분의 재신청서들 까지 더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적어도 쿼타에 2-3배수의 신청서가 신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작년과 같이 무더기 H-1B 신청을 하는 고용인들에게 두배 가까운 신청료를 올해부터 부과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무더기 신청만 일어나다면 의외로 쿼타가 그리 일찍 소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6만5천개로 제한된 H-1B 쿼타는 수십년간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등 많은 정치인들이 H-1B 비자 쿼타를 늘리려는 노력은 해왔습니다. 하지만, 매년 노력만 해오고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오랜 시간 매년 이런 노력만 하니 진정성에도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6만 5천개만 매년 가능하지만 여기에 몇가지 예외들이 있습니다. 아

래와 같은 단체나 회사에 고용되거나 고용 제안을 받은 분들은 쿼타에서 제외 됩니다.

- 미국 석사 학위자

먼저, 미국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들에게는 별도로 2만개가 배정됩니다. 또한, 추첨을 하게될 경우, 미국 대학 석사 신청서만 골라 이들 중 2만개를 추첨을 통해 선별합니다. 여기서 탈락한 미국 대학 석사 신청서들과 일반 H-1B 신청서들을 대상으로 6만 5천개를 뽑는 추첨이 그 다음 진행됩니다. 따라서, 미국 석사 학위자들에게는 두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 Higher Education

이민법은 Higher Education 에 고용되거나 고용을 제안 받은 (offered) 자들은 쿼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Higher Education 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미국 영토내에 있는 대학 등 몇가지 조건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 주위에 있는 대학들은 이러한 조건들

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Governmental Research Organization

정부 또는 정부가 control 하는 연구단체면 가능합니다.

- Non Profit Research Organization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non-profit 단체에서의 취업이면 쿼타에서 면제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non-profit 만으로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Non profit 이면서 주 업무가 research 여야 합니다.

또한, 주 업무가 research 이지만 for profit 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for profit 단체가 미국의 대학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면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Third party petition 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본인을 고용한 단체가 for-profit 이거나 쿼타면제 대상이 아닐지라도, 본인의 주 업무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대학에서 행해진다면 대학교에 고용된 것과 같이 쿼타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그 대

학과 본인을 고용한 단체와의 연계관계에 대한 증명과 대학에서 본인의 업무를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증거들을 밝혀야 합니다.

아직 한달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서류 준비를 잘하셔서 되도록 많은 분들이 H-1B 를 취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주간 법률 칼럼 - H-1B 접수 기간 임박, H-1B스폰서가 가능한 고용주 조건?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4월 1일 H-1B 접수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민변호사들은 보통 2월부터 4월 접수까지가 일 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H-1B 접수 숫자를 보고 한해 경기를 점치기도 합니다. H-1B 숫자가 많다는 것은 회사들의 외국인 고용이 활발하다는 의미이고 고용이 활발하다는 의미는 즉 경기가 괜찮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 변호사들은 H-1B로 한해 경기를 예상하는 것을 "H-1B 경제 지표"라고 부릅니다.

요즘 H-1B 관련 문의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많은 질문들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은 본인의 고용주 회사가 H-1B 스폰서를 설 수 있는 회사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실상 법으로 규정하는 H-1B 스폰서가 가능한 회사는 매우 간단합니다. 미국 고용주 (U.S. Employer)이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면 직원에 대해 H-1B 스폰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제 케이스를 해 보면 법이 규정하는 것 외에 이민국(USCIS)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고려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회사 직원 숫자입니다. 최근 태

권도 사범님들이 P비자가 힘들어지면서 H-1B나 O비자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태권도 사범님도 태권도 관련 전공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이 있고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단을 가지고 있다면 H-1B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장에 직원이 태권도 사범님 한 분이사라면 이민국은 사범님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Specialty Occupation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장장부 관리, 청소, 세일즈, 상담 전화 응대까지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지 않은 일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민국은 회사의 위치나 사업체의 규모를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소가 상업지역(Commercial Area)이 아닌 거주지역(Residential Area)인 경우, 회사를 소규모 홈 비즈니스로 보고 실질적인 사업체(Bona Fide Business)인지 그리고 H-1B가 필요한 학사 이상의 업무가 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작은 사이즈의 오피스를 임대하고 회의실과 같은 장소는 공유하는 형태의 오피스웨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욕과 같

이 땅 값이 높은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적은 임대료로 오피스를 구할 수 있는 오피스 웨어는 분명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 웨어의 경우 임대가 아닌 멤버십 형태로 운영되며 사무실의 사이즈가 매우 작고 회의실 사용에 횡수 제한이 있는 등 이민국 입장에서 사업체를 H-1B를 고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5년 이민국의 결정을 보면 이민국은 168sq feet의 아주 작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직원이 하나 뿐인 고용주는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Specialty Occupation에 준하는 업무가 있을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이민국의 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법인의 경우 오피스의 사이즈가 작더라도 회계사라는 직업 자체가 작은 규모의 오피스로 충분할 수 있고 학사 이상의 학력과 자격증을 요하는 직업이므로 H-1B를 스폰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보험 증권과 같은 재정 관련 사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업 형태나 다른 조건들에 따라 H-1B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체가 혹은 앞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H-1B스폰서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H-1B를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 회사라도, 직원 수가 한 명이거나 사업장이 너무 작더라도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고용주(U.S. Employer)라면 아무리 약점이 있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스폰서 하려고 하는 H-1B 직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Specialty Occupation이라는 증명만 해주면 되고, 이민변호사들의 창의력은 여기서 발휘됩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은 열립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상담 및 문의

상담 및 문의: 보스톤 **큐20** T. 617-955-9112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중앙대학교병원

전문 의료진 75명 / 40여개 의료장비(MRI, MRA, MDCT, PET CT 포함)

- ◎ 전달 간호사 1:1 사전 맞춤 상담
- ◎ 위/대장 내시경 당일 동시검사 시행
- ◎ 1:1 에스코트 / RFID 전자 태그 시스템
- ◎ 진료과목별 전문의 교수의 시술 및 판정
- ◎ 첨단장비를 통한 신뢰성 있는 조기진단
- ◎ 신속한 외래진료 협연 및 응급 의료 시스템
- ◎ 김진센터 내에서 모든 검사 시행
- ◎ 결과 및 영양상담과 과거 검진결과와 비교분석



휴람
3주년기념
특별할인
6월 30일(목)까지

기본검진 프로그램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할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	여성
[50세미만] 55만원 → 49만5천원 신체계측, 지상분절식, 안저검사, 안저 사진, 청력, 폐기능, 흉부촬영(정면, 측면, 심전도, 혈액형, 알부민, 간기능,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신장기능, 전해질, 당뇨병검사(공복, 당화혈색소, 고지혈증, 요산, 갑상선기능, 중성지방지단백,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 대두, 아이스, 소변, 대변암검, 기생충),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치과진료(치주질환, 치아우식증, 치아미모즈), 식생활평가	[50세미만] 59만원 → 53만1천원 신체계측, 지상분절식, 안저검사, 안저 사진, 청력, 폐기능, 흉부촬영(정면, 측면, 심전도, 혈액형, 알부민, 간기능,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신장기능, 전해질, 당뇨병검사(공복, 당화혈색소, 고지혈증, 요산, 갑상선기능, 중성지방지단백,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 대두, 아이스, 소변, 대변암검, 기생충),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치과진료(치주질환, 치아우식증, 치아미모즈), 식생활평가, 악성종양생물검사, 유방촬영, 여성보존
[50세이상] 67만원 → 60만3천원 50세미만 기본검진 + 선천성심사 1 (자선성 흉부 CT 또는 심장초음파)	[50세이상] 69만원 → 62만1천원 50세미만 기본검진 + 심전도 자동초음파

정밀검진 프로그램

남성	여성
신체부위별 정밀검진 1. 소화기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대장내시경(수면), 복부&골반CT 100만원 → 90만원 2. 심장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심장정밀혈액,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100만원 → 90만원 3. 뇌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뇌정밀혈액,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150만원 → 135만원	신체부위별 정밀검진 1. 소화기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대장내시경(수면), 복부&골반CT 110만원 → 99만원 2. 심장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심장정밀혈액,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110만원 → 99만원 3. 뇌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뇌정밀혈액,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154만원 → 138만원
정밀검진 1. 암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저선량 흉부CT, 갑상선 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전립선초음파, 남성호르몬, 대장내시경(수면), 복부&골반CT, VIT-D 200만원 → 180만원 2. 프리미엄정밀 : 암정밀검진 + 뇌 - 심장정밀혈액, 뇌 MRI & MRA, 폐 - 심장혈관CT 300만원 → 270만원 50세미만 기본검진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전립선초음파, 남성호르몬, 대장내시경(수면), VIT-D, 복부&골반CT, 뇌 - 심장정밀혈액, 뇌 MRI&MRA, 저선량흉부CT - 관상동맥CT	정밀검진 1. 암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저선량 흉부CT,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자궁초음파,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유방초음파, 대장내시경(수면), 복부&골반CT, VIT-D 220만원 → 198만원 2. 프리미엄정밀 : 암정밀검진 + 뇌 - 심장정밀혈액, 뇌 MRI & MRA, 폐 - 심장혈관CT 320만원 → 288만원 50세미만 기본검진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유방초음파, 자궁초음파,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대장내시경(수면), 복부&골반CT, 뇌 - 심장정밀혈액, 뇌 MRI & MRA, 저선량흉부CT

속박(다이아몬드)검진 프로그램

남성	여성
480만원 → 432만원 1. 소화기정밀 : 헬리코박테리아균(항생제, 대장내시경(수면), 복부&골반CT) 2. 심장정밀 : 심장정밀혈액,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3. 뇌정밀 : 뇌정밀혈액,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4. 폐정밀 : 저선량 흉부CT / 5. 암정밀 : PET-CT 6. 척추정밀 : 경추MRI, 요추MRI 7. 내분비정밀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복부비만CT 8. 남성정밀 : 남성호르몬, 전립선초음파 9. 기타 : 변질혈액, 치아X-선촬영	500만원 → 450만원 1. 소화기정밀 : 헬리코박테리아균(항생제, 대장내시경(수면), 복부&골반CT) 2. 심장정밀 : 심장정밀혈액,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3. 뇌정밀 : 뇌정밀혈액,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4. 폐정밀 : 저선량 흉부 CT / 5. 암정밀 : PET-CT 6. 척추정밀 : 경추MRI, 요추MRI 7. 내분비정밀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복부비만CT 8. 여성정밀 :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자궁 초음파, 유방초음파 9. 기타 : 변질 혈액, 치아 X-선 촬영

★ 토요일검진 : 매월 2째, 4째주 토요일 /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02 중앙대학교병원 다정관 3층 건강증진센터



HURAM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키키오독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 큐20
 617.955.9112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틀, 런드로맷(Laundromat) 상점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에
항상 리스킹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런드로맷 연매상 \$500,000 부동산 포함 매매가격 \$1,200,000

런드로맷 연매상 \$190,000 + 100% 주인부채 중 운영 좋은 위치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보스톤 북쪽 일식당 풀 비어/와인 리커 면허증, 연매상 \$600,000 매매가 \$200,000

드롭 보스톤 북쪽 연매상 \$100,000 매매가격 \$35,000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260,000 부유한 동네

메인 포틀랜드 컨비니언스, 연매상 \$700,000 좋은 위치, 변화한 플라자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톤 북쪽 식당, 아침/점심 연매상 \$290,000+ 1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보스톤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톤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네일살롱 캠브리지 연매상 \$190,000 매매가격 59,000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I(old,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가능

전과목 개인과외 가능
오랜기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4월 Spring Break 프로그램

- 1.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New SAT I class**
새로운 문제유형을 완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최적의 수업을 제공합니다.
〈수업일정〉
10:00-1:00 강의
(Evidence-Based Reading, Writing, Math
without a calculator, Math with a calculator)
1:00-2:00 점심식사
2:00-5:00 문제풀이 연습
- 2. SAT II Subject test classes**
Math II C, Biology, Chemistry, Physics
- 3. 5월 AP 대비 전과목 수업가능**

- 4. 초,중등생을 위한 writing class**
5~8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소규모 class로 운영됩니다.
〈Goals〉
• Improve writing skills
(Six traits: Ideas and Content, Organization,
Word Choice, Conventions,
Sentence Fluency, and Voice).
• Improve critical thinking skills.
• Prepare for school writing assignments
기간: 4.16(토)~23(토) 8일간
시간: 1:00-3:00

Narrative Writing, Expository Writing,
Technical Writing/Vocabulary,
Persuasive Writing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